



코스피	2476.11 (-1.60)	코스닥	858.70 (-7.23)
금리 (국고채 3년)	2.31 (+0.02)	환율 (원/달러)	1068.00 (-1.30) (14일)



[GM 먹튀논란] 노조 무서워 기자회견 취소... 04

# “회계감사비 폭리, 문제 많다” 감독당국 칼 빼나

## ‘재감사비용 10배 폭리’ 방지 위해 ‘의견거절’ 받은 퇴출 위기 상장사 기존 회계법인외 타법인 감사허용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감사재감사 때 감사비를 큰 폭으로 올려 폭리를 취하는 회계법인의 횡포가 사라진다. 기존 회계법인 외에 다른 회계법인도 재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상장사의 재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기존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재감사 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재감사 때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책이 곧 나올 예정이다. 현재 KRX 상장규정에 따르면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기존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감사비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본지 5월 10일자 3면 참조)

실제로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가 재감사 결과로 살아난 트루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존 감사계약 당시 보수는 4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재감사 때는 총 4억9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또 다른 A기업은 감사보수로 10억원을 지불했다. 기존 감사보수(5000만원)의 20배를 지불한 것. 감사에 소요된 시간이 888시간에서 6295시간으로 7배 이상 늘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시간당 감사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높은 감사보수 요구에도 기업은 ‘올려 쳐자 먹기’로 기존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상장사의 경우 재감사를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감사 시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다른 소형법인에서 재감사를 받은 후 재감사를 하겠다는 회계법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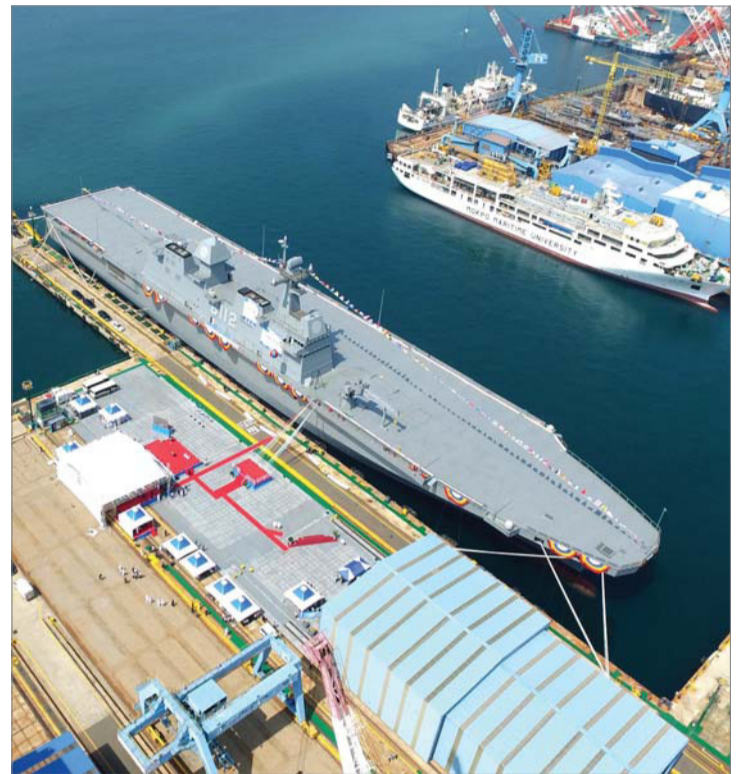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협의

거쳐 앞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재감사를 받을 때 기존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외부감사 대책이 마련되면 상장사들은 재감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계법인과 경쟁가격을 유도해 적정한 시장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감사 시 상장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감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상장사들이 ‘의견 소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해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진수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4천t급의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최대속력은 23노트다. 1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마라도함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사우디원전 내일 발표... 쏠리스트에 韓 포함

〈우선협상대상자〉

## 사업비 100兆 대형프로젝트

200억달러(약 21조526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했다.

(본지 5월 4일자 1면 참조)

14일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오는 16일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쏠리스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쏠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 전경. /연합뉴스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4GW(기가와트) 원전 2기를 건설한 뒤, 2040년까지는 원전 16기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로, 총 사업 규모만 해도 100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우디 정부는 16일 2~3개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2018년

말 최종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예비사업자로 한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해 발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지난 3일에는 사우디의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칼리드 알팔리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 방

한해 사우디대사관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가했다.

알팔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예비사업자 선정 전망을 묻는 질문에 “난 낙관적이다(I am optimistic)”라고 밝혔다.

이러던 인사말에서는 “오늘 저는 영광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기회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담을 나눴다”며 “이 과정에서 양국 간 협업과 교차투자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北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 중요한 의미”

## 文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불법 해외재산 도피 대응 합동 조사단 설치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 공개에 대해 14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불법 해외재산 도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청, 검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공고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 남관표 2차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비핵화 시작’과 함께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

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

고 있다”면서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해 우리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사회지도층이 보여주고 있는 해외소득 및 재산 은닉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직접재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보수의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社告

## 메트로경제가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언론계 주인공을 찾습니다. 2002년 5월 창간한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올 3월에는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유·무료신문 동시발간 체제에 돌입한 메트로신문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일 아침 시민들에게 <메트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6주년인 2018년을 맞아 관공서·기업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5일 유료신문인 <메트로경제>를 직접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메트로신문은 신문의 격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16년 역사의 메트로신문과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산업 / 금융 / 유통 / 정치분야 취재기자
- 모집내역 ①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② 모집인원: 0명
- ③ 응시자격: 해당 분야 경력 3~10년 사이
-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지원서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지원서에 사진부착)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기명기사 3건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18년 5월4(금) ~ 2018년 5월18일(금) 오후 6시까지
-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5월 18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본지 웹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문의: 경영지원실 (02-721-9826)

# ‘금융은 적폐’ 인식... 핀테크 등 경쟁력은 뒷걸음질

## ☞ 정부 1년과 금융혁신

### (下) 금융산업 경쟁력

‘은산분리’ 인터넷銀 성장 발목 경쟁력 강화보다 적폐청산 집중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필요

문재인 정부가 전면내세운 포용적·생산적 금융은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년 뒤로 밀려나야 했다.

정부가 이달 들어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 아래서 기존 금융회사가 누리던 지대(地代)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폐 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 ◆ 금융경쟁력 강화할 청사진 부재

지난해 4월과 7월 인터넷전문은행인

〈진입규제 개편의 비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진입장벽 낮추기	진입과정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성, 중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li> <li>○ 금융산업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li> <li>○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진입정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검토</li> <li>○ 소액당기보통회사, 온라인보험사 활성화</li> <li>○ 중개전문증권사를 인가제→등록제 전환</li> <li>○ 자문, 일임업 자본금요건 완화</li> <li>○ 특화신탁사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기준 구체화, 인가매뉴얼 개편</li> <li>○ 인가 진행상황 통보</li> <li>○ 쟁점 발생시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li> <li>○ 인가 ‘Fast Track’ 도입</li> </ul>

금융산업 혁신 촉진  
현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모험자본 공급, 고용창출

금융산업 혁신 촉진  
현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모험자본 공급, 고용창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다. 흥행 측면은 물론 금융권의 모바일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슈퍼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허가가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가 요원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은 어두워졌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은산분리라는 현행법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실상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에 금융산업 자체의 낮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며 “금융의 실패지원과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정책방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리 금융당국도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3월에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5월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과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방안을 내놨다.

#### ◆ 금융적폐 청산 논란은 지속

앞으로도 금융권에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금융적폐 청산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발전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눈 앞의 문제점들을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수장 역시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금융분야 경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난달 말까지 입법예고된 기간 동안 제시된 업계의견을 검토 중이다. 타당성이 있으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금융권을 넘어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이슈가 연이어 부각되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규제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 위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해당 금융회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자발적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유상대·정규일

한국은행은 14일 이주열 총재가 한은 부총재보에 유상대 국제협력국장과 정규일 경제통계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부총재보는 지난 1986년 한은에 입행해 경제학 박사로서 국제국장, 뉴욕사무소장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국제협력국장으로 재임해왔다. 특히 국제협력국장으로 중국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연장, 캐나다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신규 통화스왑계약 체결 등 실무를 총괄함으로써 외환안정확충 및 금융협력 증진에 기여했다. 또 국제국장을 역임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등 외환·국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신임 부총재보는 지난 1987년 한은에 입행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 박사로서 경제연구원 부원장 및 국제협력실장



유상대 한은 신임 부총재보, 정규일 한은 신임 부총재보

을 거쳐 지난 2016년 7월부터 경제통계국장으로 재임해왔다. 경제연구원의 주요 실장 및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및 현안과제 연구 등을 통해 금융위기 대응방안 등 다양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했으며 경제통계국장으로서는 주요 통계의 편제와 공표를 총괄하는 한편 디지털·공유 경제의 국민계정 반영 로드맵 완성,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등을 통해 경제분석에 유용한 통계의 개발 및 확충에 기여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새벽배송’ 유통 공룡도 뛰어든다

롯데슈퍼·GS리테일 등 이어 이마트물 ‘쓱배송 굿모닝’ 서비스 맛별이부부·1인가구 등에 편리

늦은 저녁시간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집 앞으로 배송되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유통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모바일로 장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유통업체가 온라인 쇼핑에 투자를 확대하며 소비자 니즈를 한 걸 끌어올린 결과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특히 아침 이른 시간 또는 저녁 시간에만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맛별이부부, 아침식사를 챙기는 주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1인가구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물이 오는 16일부터 예약배송 시간을 확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쓱배송 굿모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 이마트물 예약배송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첫 시간대가 ‘오전 10시~13시’였다. 여기에 ‘오전 6시~9시’, ‘오전 7~10시’의 두가지 시간대를 추가한다. 예약 배송 시간대 중에서 가장 빠른 10시~13시, 11~14시 시간대의 배송요청이 전



이마트물이 새벽에 배송을 완료해주는 ‘쓱배송 굿모닝’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마트

체 배송의 35%를 차지하는 등 이른 시간에 상품을 배송 받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 오전 시간대 배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마트는 영등포, 용산 지역에 하루 약 500건의 오전 배송을 진행하며 1차 테스트 운영 후 7월 중으로 강남 지역까지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쓱배송 굿모닝’의 배송 건수를 2000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롯데, GS도 새벽배송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지난 2월부터 오전 7시 이전에 배송이 완료되는 ‘오전배송’을 시행하며 온라인 배송 서비스 강화에 힘을 쏟았다. 고객 주문시간을 늘리고 배송시간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밤 22시까지 주문하면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집앞 배송이 완료된다. 이는 롯데슈퍼 온라인 배송 전용 센터인 ‘롯데프레시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결과다.

롯데슈퍼는 서초구와 강남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지역의 온라인 배송을 담당하는 롯데프레시서초센터를 시작으로 소비자 사용 실적과 수요 상권을 검토, 향후 경인권과 전라도 광주에 운영하고 있는 7개의 프레시센터에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GS리테일은 지난해 7월 GS리테일의 온라인쇼핑몰 GS프레시를 통해 마트물 최초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당시 GS리테일은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등 식품 MD의 차별화를 내세우며 기존 GS아이수퍼를 GS프레시로 변경하기도 했다. GS프레시는 오후 10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1시부터 7시 사이에 문 앞으로 상품을 배송해준다.

이 외에도 동원홈푸드는 가정간편식 브랜드 ‘더반찬’을 새벽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은 풀무원 계열의 율가홀푸드, 위클리리츠 등과 협업을 통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한줄뉴스

- ▲ 서울시가 주거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동안 저리로 융자해 준다.
- ▲ 앞으로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에 사용된 소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 ▲ KB금융이 2022년까지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을 위해 750억 원을 교육기부하기로 했다.
- ▲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들어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큰 폭의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 여행객과 화물수요의 증가로 국내 LC C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 ▲ LG전자가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씽큐(ThinQ)’를 14일 출시했다
- ▲ 삼성전자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 ▲ 금융당국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유병자 전용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한 달여 만에 5만건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 ▲ 금융감독원은 2017년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차입금액·빚)이 1조 5166억원 이상인 31개 계열기업군을 2018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 ▲ 식품업계가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5.1조 증가

한은, 금융시장 동향 5개월 만에 최대 수준

주택 관련 자금 수요로 은행 가계대출이 5개월 만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8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목기지론 포함) 잔액 규모는 781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6조

6500억원의 증가 폭을 기록한 이후 5개월 만 최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기타대출에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말 기타대출 잔액 규모는 202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 폭인 1조5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주택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주로 재건축아파트 이주,

신규아파트 분양 및 입주, 봄 이사철 생활자금 등으로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규제에 따른 주택 매매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2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월 증가 폭인 2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000호로 지난 2월 1만1000호, 3월 1만4000호 대비 크게 줄었다. 지난달 당국이 다주택자 양도세 및 종가세 등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택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봉준 기자

# 장사 잘하고도 '의견거절'... '회계'에 우는 벤처기업

**회사의 회계** ⑥ '의견거절'에 경영 휘청 (글)

DSK, 사업 불확실 우려 확산  
옐로모바일, 연내 기업공개 힘들 듯  
파티게임즈, 750억 투자유치 좌초



받아든 기업들은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국내 대표 강소기업으로 불렸던 디에스케이(DSK)는 올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자회사 프로텍스와 손자회사 메디카코리아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은 보고서를 통해 "중속 기업을 통한 자금대여, 법인인감 사용 및 자금집행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디에스케이는 창업 이래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지난해 디에스케이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0% 급증한 121억원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사업 호황에 승승장구하던 디에스케이가 의견거절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다.

디에스케이 관계자는 "소수에 의한 잘못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정상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건실한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기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디에스케이 1공장.

/디에스케이

회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신규 수주 등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으로는 두번째로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사)에 선정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옐로모바일 역시 이번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일부 온·오프라인 연계(O2O) 숙박업 계열사 관련 주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옐로모바일은 최근 자회사 케어랩스의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정부는 옐로모

바일을 예로 들며 국내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설립 4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국내 최초 '벤처연합' 사업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잇따랐다.

하지만 옐로모바일의 감사결과로 연내 기업공개(IPO) 목표를 현실화하기 힘들어졌다. 옐로모바일은 관련 서류를 재검비해 재검사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3년 내 상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파티게임즈는 '감사의견 거절'로 약

750억원의 투자유치가 좌초됐다. 파티게임즈의 모회사인 모다가 실시하는 7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향후 재검사를 통해 상장폐지 만은 막겠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지만 그 기간동안 신규 투자유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에 게 재검사는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재검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일부 기업은 모든 직원이 하루종일 재검사를 위한 서류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일부에선 회계감사가 간간해지는 만큼 기업에게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경영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도 내부의 회계적 역량, 절대적 인력이 부족해 회계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회계 감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서 이랜드·한라 등 5개 계열 제외 “경영진 사회물의뎌 재무평가때 불이익”

금감원, 31곳 주채무계열 선정  
신규편입 없고 평가기준 개정

올해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31개가 선정됐다. 지난해 36개에서 성동조선·아주·이랜드·한라·성우하이텍 등 5개 계열이 제외됐다. 신규 편입은 없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도덕적 일탈 등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나 일감몰아주기, 해외 계열사의 차입금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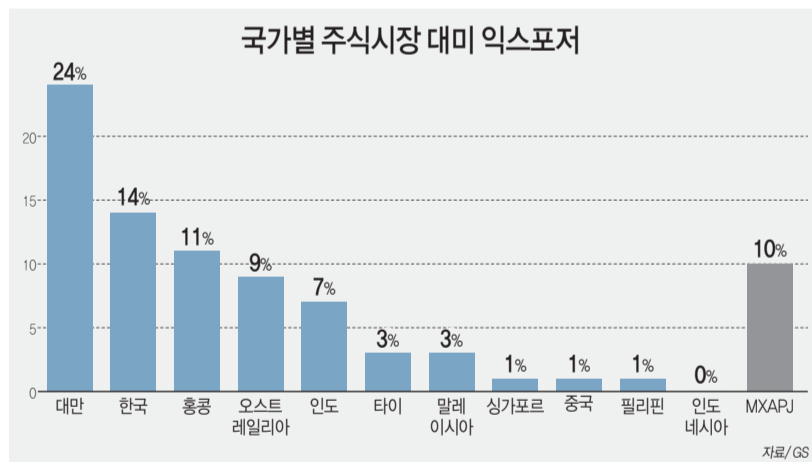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은 2017년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차입금액·빚)이 1조5166억원 이상인 31개 계열기업군을 2018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신용공여액은 24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

금감원은 매년 전년 말 신용공여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지정한다.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올해는 신규 편입없이 5개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아주는 자회사이던 아주캐피탈이 지난해 계열 분리되면서 채무가 줄었고, 성우하이텍과 한라, 이랜드는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선정 기준액



을 밑돌았다. 성동조선은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제외됐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위 현대중공업과 6위 롯데의 순위가 바뀌었다.

31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10개), 산업(9개), 하나(5개), 신한(4개), 국민(3개) 등 5개다.

올해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제도도 바뀐다.

그간 재무정보에 기반한 정량평가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나 시장질서 문란행위, 해외사업 위험요인을 반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등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이 이번엔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또 해외사업의 위험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 계열사 차입금 등도 부채비율 산정시 포함한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계열사 별도 재무제표 합산·조정방식인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올해 하반기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방통위, 모바일앱 결제 피해 집중점검

위반행위 심각할때 행정조치 검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등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통신위원회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방통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15일부터 한달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윈스토어에 등록돼 있는 모바일 앱 중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고려한 상위 50개 앱이다.

점검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사항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중요사항 고지 관련사항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자 정보(고객센

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고지여부 ▲이용요금·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정보 명시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 전에 이루어져야 함) ▲약관 내에 취소·환불규정, 과금정책 등 중요사항 포함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 여부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 및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인 기자 silkni@

###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원~~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김민인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NEOWIZ**

네오위즈

**자체 IP로 1분기 호실적**

네오위즈가 모바일 전략 역할수행게임(RPG) '브라운더스트'의 성장으로 올 1·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네오위즈는 14일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1·4분기 매출은 469억원, 영업이익은 3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 132% 성장한 수치다.

네오위즈의 호실적은 '브라운더스트'가 일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새 매출원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매출은 같은 기간 21% 성장한 195억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콘솔 타이틀 '디제이맥스 리스펙트'가 북미, 유럽에 DLC(Downloadable c

**'브라운더스트' 성공적 日 진출  
전년동기비 영업이익 1324% ↑**

ontent) 판매를 시작하는 등 자체 제작 지식재산권(IP)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해외매출 기반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국내 매출도 같은 기간 25% 증가한 275억원으로 집계됐다. PC온라인 사업 부문의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보드게임과 '브라운더스트'를 중심으로 모바일 사업부문이 견조한 성과를 보이며 전분기와 유사한 매출을 기록했다. 브라운더스트는 지난 4월 1주년 기념 업데이트를 통해 매출 순위가 반등해 10위 권내 재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네오위즈는 올해 '탭소니 월드 챔피언', '뮤즈메이커', '탭소니TOP' 등 탭소니 IP를 활용한 음악게임을 출시했다. 또 액션 빌딩 서바이벌 게임인 '포트나이트' 역시 에픽게임즈 코리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PC방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노조 무서워 기자회견 취소... 삭수 노란 GM**

**GM GM 먹튀논란**

**<下> 정상화 첫날부터 잡음**

정상화 방안에 비정규직 내용 없어 안전 이유로 취소... 무책임한 행동 구조조정으로 흑자 전환 무게 덜어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한국지엠(GM)이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한국GM이 14일 부평공장에서 예정된 2019년 흑자 전환 달성을 골자로 한 경영 정상화 계획 발표를 비정규직 노조의 행사장 진입으로 전격 취소했다. 베리 앵글 제너럴모터스(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 부문 사장과 카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한국GM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과 향후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시작부터 뼈격대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한국지엠이 경영정상화의 첫발을 떼자마자 뼈격대고 있다. 14일 예정된 '경영정상화 기자간담회'는 비정규직 노조의 기습 시위에 전격 취소됐다. 베리 앵글 제너럴모터스(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한국GM은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이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한국GM 불법 비정규직 문제는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사장 진입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를 회견 취소 이유로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베리 앵글 사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부평 공장 입구 주변에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 1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에서 열린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장 등이 국내 상주 임원이 아닌 만큼, 새로운 일정을 조율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한국GM 직원들의 기대와 업계 관심이 높았을텐데 안전을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GM의 무책임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보면 GM의 '먹튀 논란'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GM이 최근 호주 공장에 대한 모습으로 철수에 대한 우려는 확산되는 분위기다.

호주에서 2000년대 들어 15억 달러가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GM은 보조금이 끊기자 2013년 현지 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지난해 실제 폐쇄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GM은 호주에 디자인센터와 수입차 판매 법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에서 철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국에는 수입차 판매량 유지에 그쳤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GM이 국내 생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주장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또 산업은행이 비토권으로 공장폐쇄를 막기도 여의치 않다. 산업은행의 비토권은 '총 자산의 20% 넘는 자산'을 그것도 매각할 때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구조조정에 대한 행사는 할 수 없다.

**◆2019년 흑자 달성보다 계획이 중요**

한국GM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흑자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이해당사자 및 임직원,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된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 계획에는 2종의 글로벌 신차 개발 생산을 뒷받침할 총 28억 달러의 신규 투자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은행과 GM은 이날 한국GM의 사업 수익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무 지원 협약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 산은과 GM은 또한 한국GM이 보유한 약 28억 달러의 부채 해소를 실현할 재무 상태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또 한국GM은 이달 중 경차 '스파크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5년 간 15종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내용을 담은 내수 판매 회복을 위한 고객 프로모션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GM의 흑자 달성은 당연한 수순이다. 가동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군산공장은 희망퇴직을 통해 1000여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남은 600여명은 부평과 창원공장으로 전환 배치될 전망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조선업이 대표적이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국내 조선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흑자전환을 이끌어냈다. 매출 증가보다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국GM의 2019년 흑자 달성은 구조조정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동률 낮은 군산공장, 인력 구조조정 등) 필요없는 부분은 제거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 대한 부담을 적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GM과 한국GM의 진정성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신차를 2~3년 후에 출시할 전망이라 매출 증가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희생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부평과 창원공장의 매출 상황을 공개해야 진정한 흑자 경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고용에 따른 부담은 발생하겠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흑자 달성은 비교적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8 최우수축제

제40회 **진도**

# 신비의바닷길축제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

**2018. 5. 16.수-5. 19.토 / 4일간**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주최 **Jindo** 진도군

주관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후원 



# 이통사, 적과의 동침... 독 든 사과 vs 신성장 동력

(넷플릭스)

LGU+ 넷플릭스 전용 요금제 출시  
VOD 확산·가입자 유치 효과 기대  
망 사용료 변수·안방 잠식 우려도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회사들이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로 국내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국내 시장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와 제휴해 인터넷TV(IPTV)에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다.

글로벌 콘텐츠 회사들은 자사 콘텐츠 배포장구를 넓히고, 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유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칫하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국내 동영상 시장을 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1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유튜브의 키즈 콘텐츠를 자사 IPTV에 제공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자사 IPTV에서 유튜브 인기 영유아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어쑥쑥 튜브'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는 사업자는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구글과 손잡고 'U+tv' 어린이 전용



모델들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메뉴인 '아이들나라'에 '유튜브 키즈'를 탑재한 바 있다.

유튜브 키즈는 구글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린이들의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 음악, 학습, 탐색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서비스하는 글로벌 어린이 애플리케이션이다. LG유플러스의 아이들나라를 통해 이용하는 다운로드 받거나 검색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자사 데이터 요금제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넷플릭스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열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속도·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개국, 1억 2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거대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자사 요금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가입자 유치 효과를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프로모션으로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를 통해 IPTV 서비스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모바일에 한정된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며, 아직까지 장기적인 IPTV 제휴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동통신사 및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

휴를 고민하는 이유는 독과실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IPTV에는 넷플릭스가 진출하지 않은 만큼 가장 먼저 손을 잡는 사업자는 선제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지상파 콘텐츠의 위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넷플릭스가 VOD 시장 확산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그림자도 크다. 넷플릭스의 경우 글로벌 정책으로 수익배분을 '9대 1'의 수익배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지나치게 불리한 협상으로 '기울어진 시소'에 타는 셈이다. 수익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넷플릭스가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업체(CP)가 될 경우 국내 유료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넷플릭스와 손을 잡을 경우 자사 VOD 시장이 확산될지, 경쟁자가 돼 자체 OTT 시장을 잠식할지 모호한 셈이다.

망 사용료도 변수다. 망 사용료란 CP가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수년 전 할값으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과 계약해 망 사용료 비용 부담이 났다. 당시 구

글, 유튜브가 킬러 콘텐츠로 떠올라 통신사들이 별도의 비용 협상 없이 경쟁적으로 캐시서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페이스북의 경우 국내 접속경로 임의 변경 사태가 일어나 해외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특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해 유튜브는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3월에는 월 총 사용시간이 79억분에 불과했지만 지난 2월 기준 257억분으로 급증했다.

SK텔레콤도 넷플릭스와의 제휴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망 사용료 등을 신중론을 보였다.

유영상 SK텔레콤 코퍼레이트센터장은 지난 4일 진행된 올해 1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 "넷플릭스와의 제휴 추진도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망 사용료 및 이익 공유, 국내 콘텐츠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제2의 폐북'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넷플릭스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협상 시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우려의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10배 빠른 5G급 차세대 패킷 교환기 개발

SK텔레콤 올해 하반기 내 상용화  
트래픽 특성구분 인터넷망으로 연결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차세대 패킷 교환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앞서 올해 하반기 중 차세대 패킷 교환기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패킷 교환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이 인터넷 망으로 접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톨게이트에 비유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기준 대비 10배 이상 빠른 테라비트(Tb)급 패킷 처리가

속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패킷 교환기 상용 장비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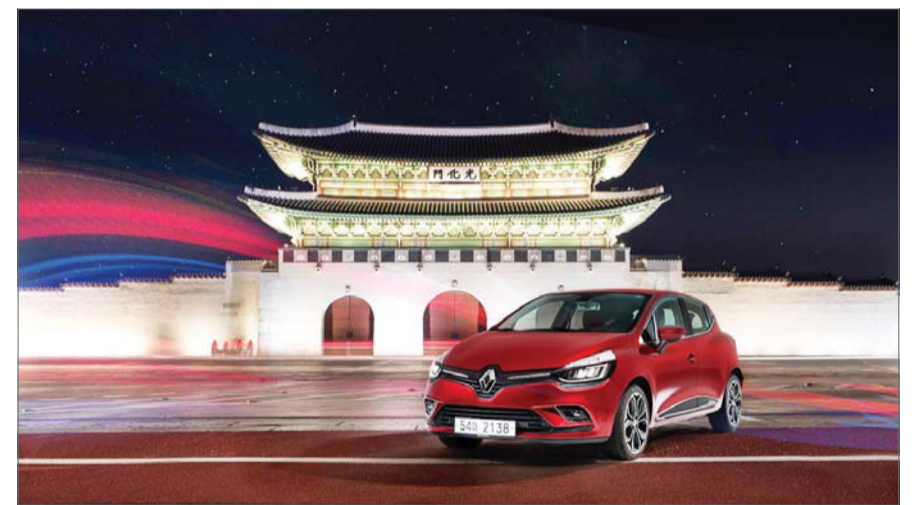
차세대 패킷 교환기는 빠른 처리 속도 외에도 자동으로 서비스 별 트래픽 특성을 구분하고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는 특징이 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멀티태스킹)해도 각 서비스 트래픽을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복수의 서비스에서 동시에 트래픽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최소화한다. 톨게이트 입구를 승용차·화물·버스 전용으로 구분해 전반적인 통행 속도를 높이는 원리다.

SK텔레콤 측은 "5G가 상용화되면 가상현실·증강현실은 물론 홀로그램과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활성화되고, 자

율주행차 등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서비스가 등장한다"며 "차세대 패킷 교환기가 서비스 별 트래픽을 나눠 5G의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최대 효율로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5G 상용화에 앞서 올해 하반기 중 롱텀에볼루션(LTE)망에 차세대 패킷 교환기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현장 적용 시험(필드테스트)도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패킷 교환기 개발에 활용한 '5G 패킷 처리 가속 기술' 관련 백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관심 있는 통신장비 업체들은 백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응용 장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르노 소형 해치백 클리오.

## 르노삼성, 소형 해치백 '클리오' 공식 출시

가격 1990만원~2340만원  
프랑스보다 1000만원 저렴

프랑스 르노가 만든 소형 해치백 '클리오(Clio)'가 국내시장에 공식 출시됐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4일부터 전국 지점과 르노 마이크로 사이트를 통해 클리오 계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클리오 국내 출시 가격은 1990만~2320만원으로 프랑스 현지 판매 가격보다 1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책정됐다.

클리오는 세계에서 1400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카다. 클리오는 수입차이지만 국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클리오의 판매와 정비는 르노삼성의 전국 230여개 판매 전시장과 470여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출시 모델은 르노삼성 엠블럼 대신 르노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로장쥬(Losange) 엠블럼을 달고 출시된다. 국내 최초로 로장쥬 엠블럼을 공식 채택한 모델이다.

젠(ZEN)과 인텐스(INTENS) 2가지 트림으로 가격은 각각 1990만원과 2320

만원이다. 인텐스의 경우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되는 동일 모델 및 사양과 비교할 때 1000만원 가량 저렴하다.

르노삼성은 국내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격 대비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소형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기 사양들도 대거 적용했다.

넓은 7인치의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내비게이션과 LED 퓨어비전 헤드램프, 3D 타입 LED 리어 콰이퍼 LED 램프, 보스(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마트 커넥트 II(T맵, 이지파킹, 스마트폰 풀미러링), 후방카메라, 전방 경보장치 같은 편의 사양을 인텐스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했다. 여기에 '온카(oncar)' 스마트폰 풀미러링 시스템을 사용하면 차량의 7인치 화면 안에서 스마트폰의 모든 앱을 구동할 수 있다.

르노가 F1(포뮬러원) 기술을 통해 개발한 1.5L 디젤엔진과 독일 게트라 6단 DC T를 적용했다. 연비는 17.7km/L에 달한다. 1.5 dCi 엔진은 르노는 물론 닛산,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판매하는 모델에도 채택됐다. /양성문 기자 ysw@

## 미아찾기도 척척... '비전 AI' 베타서비스

SK㈜ C&C 얼굴·객체 안벽 인식

SK㈜ C&C는 사람의 눈으로 보듯 얼굴과 객체를 완벽히 인식하는 '비전 AI'의 베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전 AI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산업별·업종별 고객 누구나 쉽게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집합인 애플리케이션 개발도구(API) 서비스로, 얼굴 인식 API와 객체 인식 API로 구성됐다.

얼굴 인식 API는 딥러닝과 대용량 데이터 검색을 지원해 얼굴 인식 수에 제한이 없다.

얼굴 인식 API를 사용하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아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CCTV 화면을 통해 아이의 현재 위치를 바로 찾아내고 이동 동선까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사진 속 얼굴을 3D모델로 변환해 다양한 각도의 얼굴을 가상으로 생성해 아이가 얼굴을 숙이거나 옆으로 보는 등 얼굴 정면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도 얼굴을 정확히 인식한다.

얼굴 인식 API는 기업 보안이나 마케팅,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기업이나 주요 보안 시설물에서 사용 가능한 '얼굴 인식 출입 관리'는 물론 건물 내·외의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침입자 감지 및 추적 체제'도 구현할 수 있다.



SK㈜ C&C 구성원들이 '에이브릴 카탈로그'를 소개하고 있다. /SK㈜ C&C

매장 관리 및 마케팅 측면에서도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매장 방문 고객 맞춤형 이벤트·프로모션 ▲고객 선호 메뉴 추천·주문·결제 ▲얼굴 인증을 통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비전 AI 베타서비스는 7월8일까지 에이브릴 포털 내 서비스 메뉴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유병력자 실손보험 5만건 ‘돌풍’... 속얇이 하는 보험사

(판매고)

출시 한 달여 만에 5만건 육박  
손해율 악화 ‘수익감소’ 불가피  
올해 보험사 실적 급감 전망

금융당국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유병자 전용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한 달여 만에 5만건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질병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자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반면 유병자 실손보험은 최근 2년간 치료 이력만 심사(기존 5년)하고 가입 심사 대상을 기본 6개(중전 18개)로 줄이는 등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 관련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 보험사들은 다만 일반 실손보험도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유병자 실손보험은 상품 특성상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상품 인기에 속얇이를 하고 있다. 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 ‘올며겨자 먹기’로 상품을 내놓았

〈기존 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심사 비교〉

일반·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3개월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조건,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3개월	입원 필요조건, 수술 필요조건, 치료, 추가검사 필요조건 여부
3개월	약물(수면제·진통제 등) 상시복용 여부		가입심사 요건 아님
1년	추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가입심사 요건 아님
5년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여부	2년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
5년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5년	암(진단, 입원, 수술, 치료 여부)

지만 손해율이 높아지면 수익감소가 불가피하다.

1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7개사다.

이들 손보사들이 판매한 상품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총 4만9385건. 불과 한 달여 만에 그간 실손보험 가입이 거부된 유병력자 5만여 명이 관련 상품 가입을 서둘렀다.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48건이 판매됐다. 이는 같은 기간 판매된 일반 실손의료보험(11만3151건) 대비

43.6% 수준이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DB손보가 1만 6137건으로 출시 7개사 중 유일하게 1만건을 돌파했다. 이어 메리츠화재 8581건, 한화손보 7379건 등 순이었다.

5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만 평균 3만 4230원(여성 4만8920원)으로 일반 상품 대비 1.68배(여성 1.66배) 비싸지만 수요가 높았다. 실제 1인당 평균 보험료는 5만 3578원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가입자가 4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7.4%, 40대 13.5% 등 순이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유병자 실손보험 인기에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당국의 압박에 마지못해 상품을 내놓았지만 예상을 웃도는 상품 수요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협손보는 기존 4월 출시 예정에서 이달 2일 상품 판매를 개시했고 농협생명·삼성생명 등은 판매 주기를 지켜본 결과 내달 상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유병자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이에 따라 기존 7개사에서

1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상품은 손해율이 100%를 넘어 팔면 팔수록 손해”라며 “아직 상품 판매량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업계에선 장기적으로 실적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정 손해율인 70~80%보다 높아 보험사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투자업계에서도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 출시와 잇단 수요로 올 상반기 보험사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병자 실손보험은 간편한 가입 심사도 인기를 얻고 있다”며 “손보사들이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로 손해율 악화 등을 불려와 올 한해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P2P금융+보험 결합상품 붐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꼼꼼히 확인해야”

# P2P(개인간) 금융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본 지인들을 보고 투자를 시작한 A씨(33).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했지만 수익률 만큼 손실도 계속 발생해 투자 원금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P2P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높은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강조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만큼의 높은 위험이 존재해 때론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P2P 금융업체는 투자금의 손실에 대비해 P2P 금융과 보험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P2P 금융업체 관계자는 “P2P금융과 보험을 결합하더라도 100% 원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P2P 금융업체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P2P금융사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투자할 기업이 대부(중개)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P2P대출 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

을 의무화 했다. P2P 금융업체 홈페이지에 제공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금융위에서 제공하는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또 P2P금융기업의 연체율과 부실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체율과 부실률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다만 연체율과 부실률은 상환일로부터 지연 연체되는 현상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투자 전 회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누적대출액 대비 대출잔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투자할 분야(신용·기타담보·부동산담보·부동산PF)의 누적 대출액 대비 대출잔액이 다른 기업에 비해 많지 않은지, 일정기간 감소하지 않고 정체돼 있진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한 분야 대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P2P 금융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신용, 기타담보, 부동산담보, 부동산PF에는 각기 다른 신용평가 모델과 리스크 관리법이 필요해 한 기업에서 다양한 분야를 관리하기 어렵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우리 기자 yul115@

## 흥국화재 챗봇 고객응대 서비스 개시

흥국화재는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챗봇(채팅로봇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흥미봇’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계약 대출, 보험관련 질의 응답, 지점·플라자 위치 안내, 나이·성별에 따른 상품소개 등 고객의 문의에 채팅로봇인 ‘흥미봇’이 실시간 응대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챗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제공으로 별도 앱(App) 설치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객은 ‘흥미봇’ 서비스를 통해 직접 금융플라자나 영업점을 내방을 하지 않



아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보험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흥미봇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 윤종규, 美서 빌 게이츠·워런 버핏 만난다

(KB금융그룹 회장)

‘MS 최고경영자 서밋’ 참석  
국제 트렌드·사업 전반 논의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이번 주 미국에서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글로벌 경영자들을 만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회장은 15~18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 서밋(MSC EO Summit)’에 참석할 예정이다.

MS CEO 서밋은 지난 1997년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글로벌 기업 CEO들과 함께 국제 트렌드와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이후 연례행사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등이 참여하며, 윤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해도 한국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다.

윤 회장이 그간 디지털에 기반을 둔 미래금융을 강조한 만큼 이번 미국 출장에 서도 이와 관련한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에도 윤 회장은 일주일간 구글,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과 유명 핀테크(FIN-Tech) 업체, 벤처 캐피탈업체 등을 방문했고, 이후 임원회의를 통해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CEO 서밋 참석이)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미래에셋, 베트남에 금융라인업 완성

프레보아생명 통합법인 출범  
12년만에 ‘증권·자산운용’ 등

글로벌 금융그룹 미래에셋이 베트남 진출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에 이어 미래에셋생명까지 주요 계열사가 모두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면서 미래에셋의 동남아 전진기지로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베트남을 거점으로 미래에셋의 글로벌 행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프레보아 베트남 생명과 통합법인인 미래에셋프레보아생명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운용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사무소를 설립한 지 12년 만에 증권·자산운용·파이낸스에 이어 보험사까지 진출하며 금융영토 확장에 나선 양상이다.

지난해 7월 1조1000억 동, 우리돈 약 51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미래에셋생명이 프레보아생명 지분 5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자본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최대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프레보아생명은 베트남 현지 생명보험 업계 10위 규모 회사로 수입보험료 성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오른쪽 두 번째),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오른쪽 네 번째), 파트리샤 라코스트 프레보아그룹 회장(오른쪽 끝)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률이 최근 4년간 1위를 기록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로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 대형은행 중 하나인 NCB은행과 단독 제휴를 맺는 등 총 7개 은행과 연계한 방카슈랑스 영업에 집중하고 있어 자국 경제성장에 비례해 특화된 성장동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생명의 투자에 힘입어 미래에셋프레보아생명은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춘 회사로 출범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06년 국내 운용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사무소를 설

립하며 중국·홍콩 등 중화권 네트워크에 이어 동남아 지역 교두보를 구축했다. 지난 2월에는 베트남투자공사와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 운용사인 틴팻(Tin Phat)을 인수하여 합작 법인을 출범하며 베트남 시장의 확고한 주도권을 확보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미래에셋은 베트남은 물론 아시아, 유럽 등 국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우량자산을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이제, 야구를 사랑하는 SK텔레콤, KT 고객도

TV 중계보다 더 재미있는 U+ 프로야구 앱으로  
야구 보는 즐거움을 누리보세요

5월 한 달 동안은  
U+ 고객만이 누리던 혜택을  
SK텔레콤, KT 고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야구는 U+로 봅니다



### [U+ 프로야구 주요기능]

- 포지션별 영상** 홈/1루/3루/외야 방면의 원하는 경기 상황을 골라 보는
- 득점장면 다시보기** 실시간 중계 중에도 지난 득점 장면을 돌려보는
- 상대 전적 비교** 팀간, 투수-타자간 전적 비교 데이터로 경기를 더 흥미롭게
- TV로 크게 보기** U+프로야구 앱과 똑같은 화면을 TV로 볼 수 있는



지금 U+ 프로야구 다운로드 받으세요





**NH투자증권**  
해외주식 환전 우대 서비스

NH투자증권은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자동 우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 우대율은 미국 달러화(USD) 기준 최고 80%까지 적용되며, NH투자증권 해외주식 거래 고객이면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NH투자증권 고객 등급 혹은 환전 금액에 따라 차별화된 우대율이 자동 적용 되는 것으로, 상세 기준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제품 NH투자증권 글로벌주식부부는 “환전 자동 우대 서비스 실시로 고객은 온라인에서도 NH투자증권 고객 등급 및 환전 금액에 따라 합리적인 환율을 제공받게 됐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우대가 적용되어 고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하나UBS자산운용**

‘그레이터코리아 펀드’ 출시

하나UBS자산운용은 한반도 평화기류 정착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더 큰 대한민국의 주목하는 ‘하나UBS 그레이터코리아 펀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협소한 내수 시장 규모,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낮은 배당률,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선진국 및 이머징 시장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완화는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관심을 점차 고조시키고 있다.

하나UBS 그레이터코리아 펀드는 한반도의 평화기류 속에서 공동 번영을 꿈꾸는 신경제공동체 시대를 맞이해 저평가된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정세변화에 따라 국면별 수혜업종 및 업종별 대표주를 발굴하여 초과 성과를 추구하며 실적개선이 두드러지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김문호 기자

**外人 국내주식 2조 순매도**

지난달 외국인 국내 주식을 2조원이 넘게 팔아치웠다. 채권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지속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2040억원을 순매도해 한 달만에 매도우위로 돌아섰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조9000억원, 3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1000억원), 중동(-1조3000억원)에서 주로 매도했고, 미국(1조4000억원), 아시아(3000억원)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4000억원), 사우디(-1조2000억원), 룩셈부르크(-4000억원) 등의 매도 규모가 컸고, 미국(1조4000억원), 중국(2000억원), 싱가포르(2000억원) 등은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643조8000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백화점-이마트’ 두 축, 남매경영 기반 탄탄

**2018 기업 지배구조 개편**

**⑨ 신세계**

정용진, 이마트 등 대형마트부문 정유경, 신세계百貨 사업부문 맡아 증여세 1조 부담... 자금 확보 필요

신세계그룹은 안정적인 3세 경영체제를 완성한 상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은 백화점 사업부문을 맡으며 남매 분리 경영 체제를 만든 것. 이제 여전히 그룹 최대주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지분승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1년 신세계의 백화점부문을 존속법인으로, 대형마트 부문을 신설법인인 이마트로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시작으로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나섰다. ‘신세계’와 ‘이마트’를 지주회사 격으로 두고 있는 신세계그룹 지배구조의 초석이다.

이후 2016년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보유 지분을 맞교환하며 분리경영 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 지분 772만203주(7.3%)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정 총괄사장은 이마트 지분 70만1203주(2.5%)를 정 부회장에게 각각 넘겼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이마트 지분 9.8%,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지분 9.8%



보유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높였다.

남매의 지분 교환 이후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도 빠르게 진행됐다. 우선 신세계 백화점이 운영하던 프리미엄마켓과 스타슈퍼 도곡점 등 4곳을 이마트로 양도하며 식품과 마트사업을 정 부회장이 총괄하게 됐다. 이어 신세계에 남아있던 신세계프라퍼티 지분 10%도 이마트로 모두 넘겼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스타필드 등의 복합쇼핑몰(신

세계프라퍼티)과 SSM(기업형슈퍼마켓)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정 총괄사장은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에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널 주식 150만주를 증여받았다. 이에 정 명예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은 종전 21.68%에서 0.68%로, 정 총괄사장의 지분은 0.43%에서 21.44%로 바뀌었다. 정 총괄사장이 신세계인터내셔널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신세계백화

점과 면세점, 패션사업(신세계인터내셔널) 등 패션유통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18.2%)와 이마트(18.2%) 지분이다. 신세계그룹의 지분구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하면 경영승계 작업은 마무리된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증여세 부담이다. 14일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 지분가치는 1조3622억원, 신세계는 7514억원이다. 증여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정용진 정유경 남매는 증여세 마련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광주신세계 지분은 52.08%로 현재 주가를 고려하면 지분가치는 2000억원에 달한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인터내셔널 지분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신세계 지분 확보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신세계가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이인영NICE 신용평가책임연구원은 “이명희 그룹회장의 지분승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배구조 변동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지배구조 변화, 이에 따른 계열 지배범위 변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3D 검사장비 기술력 탁월... ‘로봇회사’ 우뚝

**코스닥 기업탐방**

**고영**

세계 최초 3D SPI·3D AOI 개발  
‘리얼타임 컴퍼니’ 신기술 신속 공급

“고영의 사업 전략은 쉽게 풀리지 않은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퍼스트(first)에 집착한다.”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고영의 연구개발(R&D)센터에서 만난 박현수 고영테크놀러지 경영기획팀장은 “해외시장에서는 고영을 로봇회사로 부른다”며 자사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고영은 작년 6월 국내 최초로 로보글로벌의 ‘로보틱스 자동화 인덱스(ROBO ETF)’ 지수에 편입됐다. 지멘스, 엔비디아, 파나 등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다.

2002년 설립된 고영은 핵심 역량인 메카트로닉스, 광학, 비전, 소프트웨어



경기도 수원 광교에 위치한 고영 R&D센터./고영

(S/W) 기술을 바탕으로 3D 측정 기술을 통해 다양한 공정의 불량률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불량 원인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영은 세계 최초 3D 납도포검사기(SPI)를 개발했다. 이후 개발한 3D 자동광학검사장비(AOI) 역시 세계 최초다. SPI는 기기의 성능 자체를 검사하는 장비이고, AOI는 생산 공정 각 단

계에서 바로 전의 공정이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다. ‘최초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게 고영의 사업 전략이다.

고영의 3차원 검사장비와 서비스는 모바일, 자동차 전자, 의료, 군수, 항공 등 다양한 전자제품 생산 현장에서 활용된다. 단순 이미지 비교로 부품의 오류를 발견하는 2D 검사장비와 달리 3D 장비는 전자기기 부품을 수직과 수평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잡아주는 것이다. 또 다른 기업 전략은 ‘리얼타임 컴퍼니(real time company)’다. 이를 위해 중국,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에 해외법인을 세웠고, 베트남에는 사무소를 열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리얼타임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제품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고영의 성장전략은 안정적 성장이다. ‘꾸준한 고성장’이다. 최근 지역마다 흩어져있던 연구개발(R&D)센터를 광교로 통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고영의 3D 뇌수술용 의료로봇 IST-가이드 로봇./고영

고영이 지난해부터 본격 개발·생산에 나서고 있는 3D 뇌수술용 의료로봇 ‘IST 가이드 로봇’은 고영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전망이다. 이는 뇌수술 시 3D 영상을 통해 주요 혈관과 신경을 피해 정확한 위치로 수술도구가 가이드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술의 정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 산하 한 병원과 공동 개발에 들어갔으며 국내에서도 한양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삼성 병원 등과 협력하고 있다.

고영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8.4% 증가한 2034억원, 영업이익은 31.6% 증가한 437억원을 기록했다.

/손영지 기자

## 시노펙스, 흑자 전환... 51억 순이익 올려

**영업익 ↓... 실질적 매출 2분기부터**

시노펙스가 1분기에 흑자 전환했다. 시노펙스는 14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실적과 관련하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무려 64.2%가 증가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개선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매출액은 487억원으로 전년 동기

459억원 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4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환사채 파생상품 평가손과 계열 편입된 넥스피안과 관련된 영업권 일괄 상각 등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였던 당기순이익은 무려 5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시노펙스의 매출 증가는 FPCB 및 멤

브레인필터의 양 사업부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고루 개선된 덕분이다. 하지만 베트남 빈트리그 사업장이 지난 4월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매출이 2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1분기의 경우 전체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나아졌으나 영업이익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김문호 기자 kmh@



# ‘靑 국민청원’ 사회적약자통로로... 인권·성평등·안전 順

1년간 청원 16만건 분석

靑 관계자 답변 청원 25건 달해  
국민추천 20만 넘는 청원도 35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새로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인권, 성평등, 안전, 환경 등의 의견이 많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한 청원은 지금까지 25건에 달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도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독에 대한 항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 강화 ▲TV조선의 종편허

〈워드 클라우드〉



/자료=청와대

가 취소 청원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 당하는 아이들 구제 등 9건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16만건에 대해 한 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분석에선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와 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분석 결과 국민청원 페이지가 여성, 아기, 학생 등 사

회적 약자들을 위해 호소하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 분석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로 언급됐다.

‘아기’의 경우엔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주를 이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도 핵심 키워드로 꼽혔다.

이날 현재 20만 이상 청원 35건(전안법 2건 포함) 중에선 인권과 성평등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이 4건이었다.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8월부터 문을 연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올해 1월까지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은 경우는 8건에 그쳤지만 2월 이후 현재까지 약 4개월 보름만에 27건이나 늘어나 국민청원에 갈수록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요일별로는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가 많았다.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2020년까지 北 비핵화 달성땐 北美 수교·평화협정 체결키로

세기의 회담 ‘북미 빅딜’ 윤곽

美 주도 핵무기 해체·반출 제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세기의 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미 ‘빅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밀그림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의 입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북미 빅딜의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와 경험을 막는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로 역할 분담해 대북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채찍을 들고 철저한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때 제공할 당근을 제시한다.

우선 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욱이 핵무기 해체를 미국 주도로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매우 빨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까지 조기에 폐기해서 미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한 마디로 미국의 손에 북한 핵무기 해체를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핵무기에 생화학무기까지 거론하며 대량살상무기(WMD)를 모두 없애라고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5개국 외국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보유 핵’과 ‘미래 핵’을 모두 포기하는 조치의 시한을 2020년으로 정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했던 브라이언 후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은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의지 여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무력의 핵심인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일부를 수개월 안에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 핵’ 일부를 조장에 국외 반출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는 것이 미국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장은 결국 불가침 의사의 서면 확인과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

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인센티브 측면에서 ‘대북 제재 해제 플러스 알파’를 거론했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북 지원에 나서긴 어렵지만 미국과 제3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및 투자를 막는 각종 미국 독자적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북한에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갈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더불어 미국이 가진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의 대북 융자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아직 북한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간 합의의 이행 방식 면에서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대해 “당신이 X를 주면 우리가 Y를 주는 방식은 이전에도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행에서 단계성과 동시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합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압축함으로써 빠르게, 크게 주고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방안은 우선 북한의 동의를 요한다. 또 북한이 동의하더라도 최대의 허들은 ‘검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소셜벤처 펀드 1200억원 조성

정부-더불어민주, 일자리대책 마련  
유망벤처에 창업비용 최대 1억 지원

앞으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이 뛰어난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의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당정협의를 통해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민간일자리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우수 청년소셜벤처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셜벤처는 돌봄·주거·일자리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창의성과 기술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당정은 특히 창업비용 지원과 함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소셜벤처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 임팩트펀드’를

올해 안에 1천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운용성과가 좋으면 2022년까지 조성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창업 붐’을 일으키기 위해 ▲창업경진대회 개최 ▲실용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지역별 혁신창업 클러스터(가칭 창업마을) 조성 ▲지역 투자펀드 확대 등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실질적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지원주택 등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천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철도역사 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줄임집 등 사회기반시설은 청년창업 공간으로 제공된다.

나아가 금속 등 전통산업 6개 분야를 ‘뿌리 산업’으로 지정,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가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뿌리 기업이 글로벌 수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업종별 상생협의체 등 대기업과의 상생모형을 확산해 납품단가 인상과 비용절감으로 고용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경제 3가지 그늘

- 1 수출 역주행
- 2 달러 뒤흔박질
- 3 불안한 유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영화속 얘기처럼 한국경제가 거센 풍랑에 흔들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여기에 달러값과 금리, 유가가 치솟으면서 한국 등 신흥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3% 경제성장률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 ◆중국수입 제한 땀 한국 생산 GDP의 1.1% 감소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의 불똥이 한국 경제로 튀고 있다.

한국의 4월 수출은 500억6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작년 같은 달보다 1.5% 줄었다. 2016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한 70.3%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던 때인 2009년 3월(69.9%) 이후 가장 낮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미국의 무역전쟁 전선이 넓어질 수록 주변국 통상정책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미·중 간, 혹은 미국과 주변 국가 간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질 경우 두 나라에 대한 직접 수출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통로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물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을 상품 성질별로 나눠보면 원자재 30%, 자본재 65%, 소비재 5% 가량이다. 즉, 중국 내수 시장으로 직접 팔려가는 소비재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자본재 비율이 95%에 달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미국 등의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중간다리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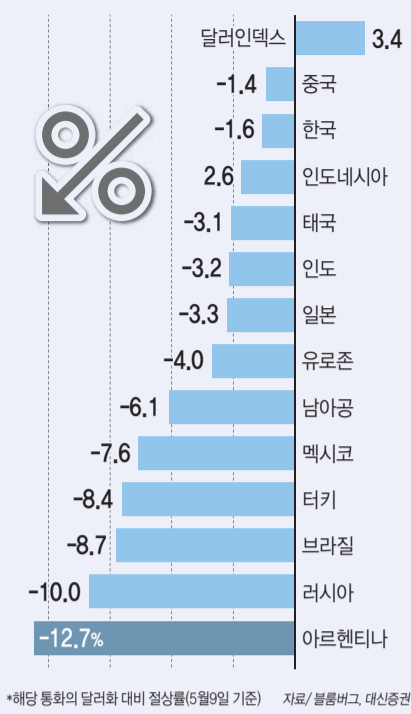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가량 수입을 줄이면 한국은 GDP 대비 0.7%(직접적 0.3%, 간접적 0.4%) 생산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반발해 중국이 GDP 대비 1% 규모로 수입을 제한한다면 대중무역 익스포저(위험노출)가 큰 한국의 생산은 GDP의 1.1%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접적 영향이 0.5%, 간접적 영향이 0.6%다.

한국은행도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할 것이라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연구원은 “G2 간 마찰이 무역 전쟁으로 번진다면, 물동량 위축과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 4월 이후 취약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율



\*해당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5월9일 기준) 자료/블룸버그, 대신증권

서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로 미국에서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미국의 기술유출 제약으로 중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부채의 폐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G2 간 무역 전쟁은 신냉전 체제 부활의 도화선이 된다”고 말했다.

### 한국 4월 수출 18개월만에 감소세 달러강세로 원화 가치 -1.6% 하락 국제유가 80달러 고지 돌파 ‘복병’

#### ◆뛰는 달러값과 금리, 신흥국 위협

달러 강세로 신흥국 시장에는 이미 경고음이 울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4월 이후 3.4%나 뛰었다. 국제 금융을 요청한 아르헨티나는 폐쇄화 가치 방어를 위해 6일 동안 외환보유고의 10%(50억달러)를 소진한 것도 모자라 기준금리를 40%까지 올렸다. 신흥국 외환보유고는 제한적이어서 통화 가치 하락을 막으려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

### (G2 무역 분쟁의 예상 시나리오)

Worst		G2 무역분쟁		Best	
	-관세 부과 -지식재산권/특허 도용 패널티 부과 -중국 기업 진출 제한 -위안화 절상 압박 심화		-중국 기업 진출 허용 및 기술이전 -중국 환율 조작국 미지정 -하나의 '중국' 존중 -한반도 전략무기 배치 철회		-미국 국채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특허 등 비용 지불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정치·외교: 신냉전 체제 부활 -금융: 미국 구축효과와 중국 기업부채, 시장 패닉 -실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정치·외교:美中간 선거 승리, 中외교적입지 확보 -금융: 미국 구축효과 차단, 위험자산 투자심리 회복 -실물: 美확장적 재정정책, 中제조업 2025 프로젝트	

다. 터키, 러시아, 브라질의 통화 가치도 급락했다.

원화 가치도 4월 이후 -1.6% 하락했다.

대신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환율변동성 확대가 신흥국 경기 전반의 펀더멘탈 약화 또는 가파른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2013년과 같은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높아지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아졌다는 점 등이 신흥국 경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 상승도 한국 등 신흥국 경제에 위협 요인이다. 올해 들어 미 국채금리가 3%를 찍을 때마다 증시에서는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017년 신흥국은 국채 등 7조7000억달러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중 8000억달러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을 회수했다. 2017년 신흥국 펀드에 투입된 700억달러 중 40억달러가 3주 동안 유출됐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코스피 영업이익 ↓ 국제유가도 복병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1.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도 각각 배럴당 74.73달러, 77.47달러를 기록하며 80달러 고지 돌파를 눈앞에 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란의 원유 공급 감소 등의 이유로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이란 제재를 본격화할 경우 이란산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2011년~2014년 코스피 상장사 1 전체 영업이익률은 7.5%에서 5.1%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상승하면 실질 GDP는 0.22%, 80달러로 오르면 실질 GDP는 0.96%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0.81% 줄어 들고 기업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투자는 7.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 석유제품의 제조 원가가 7.5% 상승 압력을 받고 이에 따라 석유제품 원가 비중이 높은 화학·운송 산업에서 생산비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정부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폭이 중소형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한채보유 심리에 중대형 아파트 다시 뜬다

올해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눈길을 끌고 있다.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인기 배경은 높은 희소 가치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가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18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의 집값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낸 평형은 전용 135~165㎡형이다. 전년 대비 평균 6.71% 올랐다. 이어 전용 165㎡ 초과 주택이 평균 6.6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 85~102㎡는 6.54%로 전국 평균(5.63%)을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반면 전용 60~85㎡ 이하는 4.54% 오르는데 그쳤다. 그동안 높은 인기를 누렸던 중소형이 주춤하는 사이 중대형이 반등의 기회를 잡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금부담이 커지면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청약물량 전부를 가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청약조정 지역도 75%로 가점제 비중을 높였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지 않은 30~40대 수요자들의 관심이 중대형으로 쏠렸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중대형 아파트는 올해 분양시장에서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월 경기 하남시에 선보인 ‘하남 포일시티’는 평균 26.29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마감률 달성했다. 중대형 타입인 전용 90㎡T형이 92.7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용 84㎡의 청약경쟁률(45.29대 1)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운전의 즐거움... BMW, 6세대 뉴 M5 공개

사륜구동 시스템 M xDrive 탑재  
실용적이고 스포티한 차체 디자인

BMW그룹 코리아가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과 고성능 스포츠카의 특성을 융합한 6세대 신형 ‘M5’를 국내 공개했다.

BMW코리아는 14일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BMW M 익스피리언스 2018’에서 ‘뉴 M5’를 출시했다. BMW 고성능 브랜드 M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뉴 M5뿐 아니라 뉴 M2, M3 및 M4 컴페디션 모델 등 다양한 M 모델을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984년 처음 출시된 M5는 출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즈니스 세단으로 자리매김했다. 6번째 변신을 거듭한 신형 M5는 M시리즈 최초로 사륜구동 시스템인 M xDrive를 탑재해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주행을 선보이며, 최고급 세단에 어울리는 넓은 공간과 첨단 주행보조 기술 옵션, 편의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일상 주행 성능은 물론, 운전의 즐거움과 탁월한 트랙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M xDrive는 후륜구동(2WD), 사륜구동(4WD), 사륜구동 스포츠(4WD Sport) 모드로 구성돼 있으며, 도로 상황이나 운전자 취향에 따라 원하는 모드로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뉴 M5는 M 트윈파워 터보 기



BMW 6세대 뉴 M5 주행모습.

솔이 점목된 최신 4.4리터 V8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608마력, 최대토크 76.5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단 3.4초에 불과하다.

디자인도 차체부터 바뀌었다. 앞 범퍼는 냉각 시스템과 브레이크에 충분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종전보다 더 크게 디자인됐고, 정교한 라인이 적용된 알루미늄 보닛과 M 전용 더블 스트럿 키드니 그릴 등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M5 모델

최초로 루프를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로 제작해 경량화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새롭게 디자인된 리어 디퓨저와 M 리어 스포일러, M 전용 트윈 테일파이프를 통해 강렬하고 스포티한 외관으로 거듭났다.

BMW 뉴 M5의 가격은 1억4690만원(VAT 포함)이다. BMW 뉴 M5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BMW 전시장이거나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문 기자 ysw@

# 소파 리폼 외길 30년 리폼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 낡은 소파 · 의자를 처음 모습으로 되돌려드립니다

### 소파·의자 / 리폼·천갈이



- 가정용 소파, 의자 천갈이(천, 레자, 가죽)
- 국내외 명품소파 전문수리
- 쿠션관계 등 모든 수리, 부분천갈이
- HOTEL, RESORT, 병원 Maintenance(보수 유지 관리)
- 기업체 관공서 의자류 리모델링
- 국내외 명품 패브릭, 가죽 다양하게 보유
- 가죽소파, 의자 염색재생

[www.seoulsofa.co.kr](http://www.seoulsofa.co.kr)

**서울쇼파**  
seoulsofa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491

전화 한통으로 서울쇼파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전국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콜센터  
(무료전화)

**080-717-7744**

- 서울강남지사: 080-717-7744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서, 양천, 동작, 영등포, 여의도, 관악, 금천, 구로)
- 서울강북지사: 02-822-7798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노원, 강북)
- 경기북부지사: 010-3335-1765 (일산, 덕양, 파주, 교하,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양평, 가평, 홍천, 춘천)
- 경인지사: 032-875-4875 (인천, 연수, 송도, 청라, 서구, 영종, 부평, 계양, 부천시전역)
- 경기 남서부: 010-7744-6658 (김포, 강화, 광명, 시흥, 안산, 안양, 평촌)
- 경기 남동부: 080-769-7288 (용인, 수지, 수원, 성남, 분당, 광주, 광교, 동탄, 화성, 오산, 군포, 의왕, 과천, 하남, 이천, 평택, 천안)

# “신생기업 IPO 간소화’... 한국판 잡스법 도입 건의”

〈기업공개〉

## 권용원 금투자협회장 취임 100일

20조원 규모 모험자본 공급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강조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검토중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금융투자업계가 작년 한 해 자본시장에서 혁신 성장 기업에 조달한 모험자본이 2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조원 규모의 혁신자본 공급 규모는 금투업계의 노력과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형 모험자본에는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자기자본 직접투자(PI), 자산운용사의 주요 전략 펀드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를 제외해도 금투업계가 조달한 혁신 모험자본은 14조5000억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규모”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9월부터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올해와 내년의 조달 규모는 더 늘 것”이라며 “국가적, 사회적

요구인 혁신성장에 금투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으로 한국판 ‘잡스법’(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도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잡스법 시행 3년 만에 자본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판 잡스법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잡스법은 연 매출 10억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기준을 면제해 주고 IPO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신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금형퇴직연금 도입안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 회장은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은 투자정책서(IPS)를 통해 투자 전략이나 전술이 잘 정리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사업자도 IPS를 도입해야 하고,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상품선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 상품 간 조세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해외 주식과 해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동일한 투자액에 대해 적용 세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권 회장은 “해외의 경우 자본시장 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며 “세제는 나라마다 배경과 역사가 달라 복잡한 문제이기 는 하지만 이와 관련 해서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디지털 혁신을 상시적,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디지털혁신팀을 발족했다.

권 회장은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을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고, 전문가 비상장주식거래(K-OTC 프로) 플랫폼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삼성, 中企에 특허기술 1091건 무료 제공

미활용 특허 이전 ‘기술나눔사업’

삼성전자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삼성전자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료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에 기술경쟁력을 개선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업기회를 찾는 동반 성장 사업이다.

진흥원은 2013년부터 포스코, LG화학,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과 기술나눔을 해왔다.

이번에 개방하는 삼성전자의 기술은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통신·네트워크 등 분야의 특허 1091건이다.



진흥원은 이전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오는 16일과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설명회를 열어 이번에 공개하는 기술의 분석내용과 산업·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삼성전자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ar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대기업, 공공연구기관과 기술나눔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 LCC 채용문 하반기도 ‘활짝’ 800여 명 채용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등 6국 항공기 신규 도입 따라 채용확대

저렴한 항공권을 찾는 여객 수요가 증가하면 저비용항공사(LCC)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행객과 화물수요의 증가로 국내 LCC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6대 LCC 업체들은 올 하반기 800여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수시 채용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채용 규모는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LCC인 제주항공은 올 상반기 180명을 채용했다.

올해 전체 채용 규모를 600명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에는 400여명을 채

용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라 신입 및 경력직을 모집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현재 34대를 운용 중인 보잉 737-800 항공기의 보유대수를 연말까지 39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는 3분기부터는 리스 항공기 외에 직접 구매한 신규 항공기들이 차례대로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400여명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진에어는 상반기 230여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에는 170여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보잉 737-800 5대의 추가 도입과 함께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올 상반기 160여명을 채용한 티웨이항공은 하반기 14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항공기 3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올 상반기 14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타항공은 하반기에 100여명을, 에어부산은 하반기 20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에어서울의 경우 내실 경영을 통해 기업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에어서울은 다음주 다낭 신규노선 운항과 일본 소도시 중심으로 노선 강화에 나선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노선 강화를 통해 올해 수익을 늘려갈 전망이다. 다만 올해 9월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라 신규 채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CC업체들이 잇따라 신규 항공기를 들여오고 있다”며 “보유 항공기가 늘어나면서 이를 운영, 관리할 인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AI 담은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씽큐’

LG전자가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씽큐(ThinQ)’를 1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스스로 실내구조를 파악하고 장애물의 종류를 학습하는 능력이 보다 정교해졌다. ‘3D 듀얼아이’를 포함한 고성능 센서와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 ‘딥씽큐(DeepThinQ)’를 탑재해 집안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과 기다리거나 우회해야 할 장애물을 구분한다.

‘인공지능 스마트 터보’를 탑재해 카펫, 코너, 먼지가 많은 곳 등을 스스로 파악해 흡입력을 높이고 상황에 따라 브러시와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코드제로 R9 씽큐에는 시장에서 인정 받은 코드제로 A9의 ‘스마트 인버터 모터 P9’를 적용해 최대 90분의 청소시간 제공하고, 청소성능까지 구현했다.

LG전자는 핵심부품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로 생활가전에 탑재하는 인버터 모터를 10년간 무상



LG전자가 14일 더 똑똑한 인공지능, 강력한 청소 성능, 고객을 배려한 다양한 편의기능을 두루 갖춘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씽큐’를 국내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LG전자

보증하고 있다.

또 LG전자는 코드제로 시리즈에서 호평받은 ‘2중 터보 사이클론’을 신제품에 적용했다. 고객이 청소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더라도 강력한 흡입력을 처음처럼 유지해주기 때문에 프리미엄 청소기가 갖춰야 하는 주요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신제품은 다크실버, 보헤미안레드 2가지 색상이고, 가격은 출하가 기준 149만원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 작년 서비스 수출 증가율, OECD 중 한국만 ‘마이너스’

수출액 877억·전년 比7.2% ↑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은 877억206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다.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증가율은 7.2%로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19.1%)를 비롯해 14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증가

율이 지난해 2015년 -12.8%, 2016년 -2.9%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늪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서비스 수출 증가세가 유달리 부진한 데는 원화 강세 여파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증가 기준)은 달러당 1130.5원으로 2016년의 1160.4원보다 29.9원 떨어졌다.

하지만 서비스 수출 감소세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대외 경쟁력 하락 탓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혁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내수 중심이자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쏠려 있다.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이거나 해외 시장 공략이 가능한 금융, 보험, 법률, 회계, 여행 등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금융, 보험, 법률, 회계 등 서비스업 경쟁력이 뛰어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매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서비스업 성패의 키는 규제가 얼마나 합리화돼 있느냐에 달렸다”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서비스업 규제가 풀리지 않아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인삼도 한류다” 수출액 1억6천만 달러

농식품부, 중국어권·이란서 인기

국내 인삼이 중국어권 나라와 이란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한류 바람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삼류 수출이 전년 대비 2016년 보다 18.7% 늘어난 1억5839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이래 감소세를 기록하던 수출이 지난해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수출 증가의 주 원인으로 농식품부는 중국·홍콩·대만에서의 뿌리삼 재고 소진과 이란 수출 확대를 꼽고 있다.

실제 중국·홍콩·대만 등 중국어권 수출액이 전년 대비 51.8% 늘어난 778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이란은 지난해 150만 달러가 수출돼 2016년 72만 달러보다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었다.

베트남·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시장에서도 전년 대비 19.1% 늘어난 1940만 달러가 팔렸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각각 18.5%, 27.3% 수출이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홍삼이 39.8% 증가해 백삼·수삼 등을 아우른 뿌리삼 증가세를 이끌었다. 홍삼정·홍삼조제품·인삼음료 등 인삼을 이용한 제품류 수출도 10.2% 뛰었다.

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고 먹기 편리한 제품을 좋아하는 현지 트렌드에 따라 스틱형 제품 같은 신제품을



/연합뉴스

개발한 덕”이라며 “한류 드라마와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한 점도 수출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짚었다.

한편, 국내 인삼 시장도 건강기능식품의 인기로 힘입어 계속 커지는 추세라 인삼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1인당 인삼 소비량도 0.38kg로 전년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삼 생산액 역시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현대·기아차, 신형시장서 뜬다 브라질·인도 등서 판매 15%↑

올 4개국 판매 42만7408대 기록  
점유율·판매 최고기록 돌파할 듯  
글로벌 목표 755만대 달성 예상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들어 브라질, 러시아 등 신형시장에서 큰 폭의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양대 자동차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신형시장 실적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판매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 4월까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4대 신형시장에서 42만7408대를 판매했다. 이는 작년 37만1213대보다 15.1% 늘어난 규모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증가율(1.9%)도 크게 웃돈다. 4대 신형시장이 글로벌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월 누계 기준 18.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신형시장 실적에 따라 올해 현대·기아차의 판매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4대 신형시장 판매량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은 러시아(2011년), 브라질(2012년), 멕시코(2016년) 등지의 신공장 건설과 함께 매년 증가해 2010년 70만9000대에서 지난해 121만2000대로 늘었다. 시장점유율도 2010년 9.4%에서 지난해 14.2%로 상승했고, 올해 4월까지 14.8%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4대 신형시장에서 판매와 시장점유율에서 최고 기록을 동시에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월 판매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브라질(14.0%)과 러시아(30.1%), 인도(6.3%), 멕시코(19.0%)에서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또 올해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신형시장에서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글로벌 판매목표를 755만대로 잡았다. 미국과 중국에서의 부진을 신형시장에서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현대·기아차는 과거 신형시장이 경기 침체로 정체기에 빠졌을 때 잇따라 철수 및 감산에 나선 다른 업체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판매망을 유지하며 고객 수요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시장의 성장 정체로 신형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대·기아차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올해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 김치 가공식품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해수부,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

앞으로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에 사용된 소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화)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김치류 가공품은 배

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체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청주국제공항에 282억 투입 ‘시설개선’

국토부-공항공사, 내년말 완공

연간 여객수 289만명 수용

청주국제공항이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객터미널과 주차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청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공사를 이달 15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청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적정 수용능력은 연간 189만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239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해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2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간 100만 명을 추가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19년 말까지 터미널을 확장할 계획이다.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여객수용 능력이 연간 189만 명에서 289만 명으로 크게



청주국제공항 전경. /뉴스1

향상(53%)돼 혼잡 완화는 물론, 장래 항공수요에도 적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요 확충시설은 대합실 등 여객이용 시설(5597㎡), 체크인카운터(10개), 수하물처리시설(출발, 도착 각 1기) 등 여객수속 및 편의시설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차빌딩 신축, 항공기 주기장 확충 등 공항인프라 확충사업도 추진한다.

총 사업비 263억원이 투입된 주차빌딩 신축 사업은 지난해 5월 착수해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4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여객터미널 전면에 건설중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소개팅앱 시장 700억 규모·40% 증가

(전년대비)

매출 상위 10개 앱중 4개 ‘소개팅 앱’  
페이스북 CEO도 시장 진출 선포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 주의해야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소개팅 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해 인연을 찾으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70개가 넘는 소개팅 앱이 존재하며 앱스토어에 ‘소개팅’이라고 검색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4일 글로벌 앱 조사 기업 ‘앱 애니’에 따르면 전 세계 소셜 데이팅 시장 규모는 6조원 이상이며 국내 데이팅 앱 시장 규모도 700억 원 규모로 작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앱스토어의 매출 상위 앱 10개 중 4개가 소개팅 앱이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이유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F8’를 통해 올 하반기에 온라인 데이팅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데이트 프로필’을 도입해 페이스북 앱 내 데이트 상대를 매칭해주는 방



다수의 소개팅 앱 아이콘.

식이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앱에 추가될 데이팅 기능은 단지 사람을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개팅 앱은 단순 자기소개를 통한 매칭에서 성향, 별자리, 취미, 목소리, 종교로 이성을 매칭해주는 등 연결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소개팅 앱의 인기를 증명하듯 온라인상에서는 ‘소개팅앱에서 살아남는 법칙’같은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한 앱을 설치해봤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사진을 올리니 금방 가입이 승인됐다. 오늘의 카드가 나타났고 상대방의 자기소개, 사진, 나이, 거주 지역, 직업 등이 나왔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관심표현을 누르고 서로 선택하면 연결이 되는 방식이다. 실시간 매칭도 이뤄진다.

소개팅 앱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A씨는 “어플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연인을 찾게 됐다”며 “잘만 사용하면 무기력한 삶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단순히 버튼 몇 번의 클릭으로 사람과 쉽게 연결되다보니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C씨 또한 “외롭다고 해도 어플로 인연을 찾는 것은 왠지 꺼려진다”며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인기만큼이나 부작용도 심각하다. 개인 보호 규제가 미비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앱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익명성을 빌린 타인 사칭, 금품 요구 등의 범죄가 쉽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미미한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셜 데이팅 앱 서비스를 이용한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8%가 “앱을 사용하다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으며 ‘유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23.8%), ‘개인정보 유출’(16.0%), ‘금전 요청’(10.2%) 등이 뒤를 이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에너지공급자에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

산업부, EERS 시범사업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관

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지만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하며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 광주 6곳 공원, 민간 특례 개발

미집행 도시공원 제안 접수 공고  
1단계 추진과정 문제점 보완  
오는 9월 중 협상대상자 선정

광주시가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1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대상 공원은 중앙·일곡·중의·송정·운

암산·신용(운암) 등 모두 6곳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넓은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사업을 추진한다. 공원 전체 면적은 711만8839㎡, 개발 대상인 비공원 시설 면적은 65만9901㎡, 공원 대상지 면적은 39만8412㎡이다. 나머지 606만526㎡는 원형지로 보존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전체 면적 중 아파트 등이 들어설 면적은 9.3%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녹지와 공원 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 업체와 기관은 제시한 비공원 시설과 공원시설 대상지 면적 기준 범위 안

에서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작성해야 한다.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은 지나친 고층화를 막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했다. 1단계에서 드러난 민간기업의 중복참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체별(계열사 포함) 1개 공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1일까지는 특례사업 의향서를, 9월 14일까지는 정식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오는 9월 중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신안 가거도서 피어난 '박달목서' 지난 1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발견된 희귀 나무 '박달목서'. 신안군은 “불 섬식색분포조사에 나선 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연구팀이 수령 150년 정도의 박달목서 1그루와 어린 유목 10여 그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美 뉴욕 퀸즈칼리지서 '외양간' 울려 퍼지다

5·18 세월호 기념식 추모곡

지난 12일 오후 6시(현지 시간) 미국 뉴욕 퀸즈칼리지에서 개최된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의 추모곡으로 진도군청 이종호씨가 작사·제작한 노래 '외양간'이 울려 퍼졌다.

휴스턴대 소프라노 나성신 교수와 소프라노 오수현씨가 이날 외양간 영상과 반주에 맞춰 직접 노래를 선보였다.

외양간은 이씨가 지난 2010년 직접 작사한 사부곡(思父曲)으로 우리나라 옛 속담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의 머릿말 잇기 속담시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음에 늘 대비하고 배려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특히 후렴구로 쓰인 외양간은 대한민국 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인 진도군 상장례 문화중 하나인 진도 만가의 구슬픈 “애~” 소리를 가미해 설움이 극에 다다를 듯하다.

미주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대표 강준화)측은 과거 이씨가 페이스북 계정



사부곡(思父曲) 외양간을 작사한 진도군청 이종호씨

등에 올린 외양간 노래와 영상을 보고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잘 표현한 듯 해 행사의 추모곡으로 사용하고 싶다”면서 지난 4월 말 이씨에게 연락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미주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북미 민주포럼·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사람사는세상 워싱턴·뉴욕한국문화재단·보스턴민주연합·민족사상연구회·416해외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 장흥 작약, 관상·약재로 '고소득' 효자

장흥 약용작물 재배단지 작약 만발  
단위면적 당 수익 벼농사 대비 5배

장흥군 용산면 송전리 약용작물 재배 단지에 작약꽃이 만발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꽃이 아름다워 함박꽃으로도 불리는 작약은 관상용으로도 재배되며, 뿌리는 진통, 빈혈, 타박상 등의 약재로 쓰인다.

장흥군에서는 2015년부터 지리적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농기계 운용이 어려운 논밭을 대상으로 약용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현재 장흥군에서는 50여 농가가 작약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약 40ha에 이른다. 작약은 단위면적 당 수익이 벼농사 대비 5배에 이르는 고소득 작물



용산 송전 작약밭.

로 3년에서 4년을 재배하면 출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작약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관 작물로도 활용해 농촌체험관광 등 6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alice1008@

## 전남도지사배 해외동호인 골프대회 17일 개최

전남도는 중국과 일본 골프 동호인 95명이 참가하는 제5회 전남도지사배 해외동호인 골프대회가 17일 화순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지사배 해외동호인 골프대회는 남도 골프 관광 인프라를 홍보해 해외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됐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중국 노선 재개와 중국인 관광객 단체관광이 허용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연계해 중국과 일본지사를 통해 빠른 홍보와 모집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에 참여한 골프동호인은 3박 4일과 4박 5일의 골프 관광상품으로 전남을 방문한다.



광주 광산구 어등산골프장 전경 /뉴스1

이는 두 번 이상의 자비 라운딩과 관광지 방문 등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관광형 스포츠 상품이다.

특히 이번 골프대회에선 전남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조선족 기업가 골프협회 회원 50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중국과 일본의 대형 여행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통해 전남 골프장의 장점을 소개하고, 체류 기간 중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청정 전남지역에는 37개의 경관 좋은 산지형 골프장, 바다와 어우러진 해안형 골프장 등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있다. 온난한 기후로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하다.

맛있는 음식과 저렴한 그린피 등 골프 관광지로써 경쟁력이 높아 매년 3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다.

방옥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골프장을 널리 알려 많은 외국 골프 관광객이 찾게 되길 기대한다”며 “외국 관광객들이 전남의 골프장에서 편안하게 라운딩을 즐기고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도록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옥스팜 트레일워커.

## 구례군 '옥스팜 트레일워커' 패밀리 프로그램 성료

구례군은 지난 1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세계적인 기부 프로젝트인 '옥스팜 트레일워커'의 10km 패밀리 프로그램이 3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코스는 구례군의 주요 관광지로 알려진 '지리산호수공원'과 지리산호수공원을 상징하는 경관다리를 거쳐 지리산권역의 100여 종의 야생화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지리산공원의 '야생화 테마랜드'를 돌아 출발지인 구례자연드림파크로 돌아오는 코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km 코스이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gunguck@

1시간 30분 만에 완주에 성공한 서기동 구례군수는 “군민과 함께 뜻깊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1981년 홍콩에서 시작된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38시간 동안 100km를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챌린지로, 지난해에 이어 지난 12일 전남 구례에서 두 번째 열렸으며, 옥스팜 트레일워커 참가비와 팀별 사전 기부 펀딩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은 100%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구호 자금으로 쓰인다.

## 구례군 전 국민 지진 대피훈련

구례군은 오는 16일 제407차 민방위의 날을 맞이하여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국민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포항 지진이

후 높아진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반영하여 전 국민 참여식 훈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경보 사이렌이 2시 정각에 울리면 건물 내 주민은 물건을 떨어뜨려 몸을 다칠 수 있으니 책상과 탁자 아래에 2분간 몸을 피한 후 유도 요원 안내에 따라 계단 등 비상구를 이용하여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야 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구례군청소년수련원에서는 순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재난관리자원 응원 협약민간기업 등 11개 민간단체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 대피, 화재진압, 응급복구, 구호 등 지진 복합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도난 택배車 동료신고로 되찾고... 차로 위 유모차 구하고... 우리 동네 파수꾼 택배기사

배달하고 오니 택배차 사라져 신고  
발 벗고 나선 동료기사 신고로 찾아  
야기·강아지 사고 막은 미담 이어져  
“공정적 모습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회사 직원이 상품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난당한 택배기사의 차량을 최초로 신고, 결국 차를 찾는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한 미담 사례가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초 신고자는 님아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동료 택배기사였다.

엄마의 손을 떠나 인도에서 차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던 유모차를 순발력을 발휘, 운전하던 택배차량으로 멈춰 차창이 찢힐 뻔 했던 사고를 막고, 택배를 나르다가 엘리베이터에 목줄이 걸려 위태로웠던 강아지를 뚝으로 날려 구출하는 등 택배기사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상품을 나르던 택배기사는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배송을 하고 돌아와보니 정차해뒀던 차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이를 전해들은 동료 택배기사는 관련 사실을 TBS교통방송의 한시사프로그램에 문자로 제보했다.

해당 회사는 택배기사들이 쓰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도난 차량 번호를 공지해 전국의 택배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난 사건은 이를 뒤 분기점을 맞았다.

또다른 택배기사 김주영(가명)씨는 26일 오후 5시25분께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비상등이 켜져 있는 한 택배차량을 발견했다. 이를 본 김 씨는 해당 차량이 도난차량임을 직감했다. 김 씨는 도난 택배차량의 기사와 같은 CJ대한통문 소속이었다. 앱으로 전달받았던 차량번호까지 다시 확인한 뒤 확신이 든 김씨는 곧바로 112에도 신고했다.

그러던 순간에 해당 차량이 움직이자 김씨도 무작정 자신의 차를 몰고 쫓아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던 도난 차량이 급격하게 유턴을 하면서 김씨는 안타깝게도 범인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7분 가량 추적했던 경로 및 예상 주도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수사에 도움을 줬다.

김씨는 이후 차량을 도난당한 택배기사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여전히 차량을 찾지 못한 사실도 파악했다. 자신이 쫓던 차량의 운전자가 범인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다시 김씨는 해당 주인에게 라디오 방송에 제보를 또 한번 하라고 조언했고, 결국 차량을 잃어버렸던 택배기사는 방송을 들은 추가 목격자들의 제보로 같은 날 저녁 늦은 시각에 경찰을 통해 도난차량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범인은 차량을 놓고 도망을 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제보자였던 택배기사 김씨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다보니 나도 택배차량을 잃어버렸다는 심정으로 무작정 쫓아갔다”면서 “앞으로는 차량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할 뿐”이라고 전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가 우리 일상으로 깊숙히 들어오며 택배·택배기사와 관련한 부정적·공정적 뉴스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삶의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는 택배가 일반 국민들에게 긍정적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업계 종사자들이 모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coul.co.kr

# 하도급社, 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반영 신청 가능

중기중앙회 하도급법 설명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원청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제품 등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는 오는 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법이 개정돼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크게 오른 최저임금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대상 등을 확대한 하도급법이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도 조정 신청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주관을 맞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또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늘어난 경우 하도급 업체나 중기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난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내용 등도 이날 설명회를 통해 전달됐다. /김승호 기자



14일 종로구 보령빌딩 증보홀에서 진행된 서울연구소 설립 5주년 기념식에서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 보령제약 최태홍사장(앞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 서울연구소 최성준 소장(여덟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령제약

## 보령제약 “카나브 패밀리 구축 박차”

서울연구소 설립 5주년

설립 5주년 된 보령제약 서울연구소가 보령제약 국내의 임상시험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설립 5주년을 맞아 14일 종로구 보령빌딩 증보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서울연구소는 2013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임상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카나브, 암로디핀 복합제인 두카브, 카나브,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투베로 허가용 임상시험은 물론 멕시코 카나

브 허가용 임상시험 등을 관련기관들과 협업하며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향후 서울연구소는 올해 멕시코에서 두카브 허가용 임상시험을 시작해 아프리카에서는 카나브 단일제 IND 승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연구소는 카나브 패밀리 임상데이터를 확보해 왔다. 카나브 패밀리는 한국에서 1만 4151명의 대규모 카나브 단일제 허가 후 임상연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약 4만 여명의 환자와 총 67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 가치를 입증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이대목동병원, 아프리카 어린이 7명에 새생명 선물

심장병 환자 무료 수술 진행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무료로 선천성 심장병 개심 수술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아프리카 의료봉사에는 서동만 흉부외과 교수와 손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롯해 엄명옥, 이은주, 주무근 간호사, 신상희 체외순환사 등의 심혈관 수술 전문 의료진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현지 의료진이 참관한 가운데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서동만 교수의 지도 아래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2살 유아를



서동만 이대목동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아프리카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에서 심장질환 어린이에 대한 선천성 심장병 개심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비롯해 심장질환 어린이 7명에게 무료 수술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장병 수술과 관련한 강연

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은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의 심장 수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현지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 선진 의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 수술실 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사 등 총 4명의 의료진을 초청해 의료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

서동만 흉부외과 교수는 “앞으로도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진 나라들을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며 한국의 선진 의술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항고혈압·고지혈 3제 복합제 시판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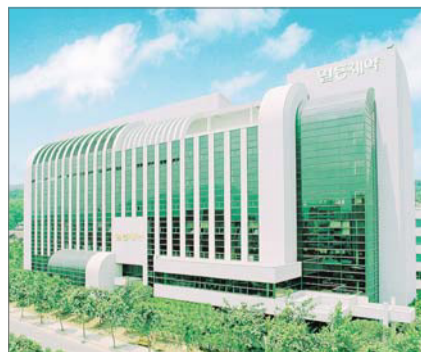
일동제약 ‘텔로스톱플러스’

일동제약은 고혈압 및 고지혈 치료용 3제 복합제인 텔로스톱플러스 개발에 성공, 해당 품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텔로스톱플러스는 혈압강화제인 안지오텐신 II 수용체차단제(ARB) 계열의 텔미사르탄 및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암로디핀, 지질저해제인 스타틴(statin) 계열의 로수바스타틴을 조합해 단일 정으로 만든 제품이다.

이 제품은 텔미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와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해야 하는 본태성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동반 환자의 경우에 세 가지 약제를 한 알로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도록 약물 순응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텔로스톱플러스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지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 3상 시험을 통해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을 투여한 3제 요법군이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을 투여한 2제 요법군, 텔미



일동제약 본사. /일동제약

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투여한 2제 요법군에 비해 각각 고지혈증 조절, 고혈압 조절 측면에서 우월함을 입증한 바 있다. /유재희 기자

## 베트남TV 간접광고 희망 中企·벤처 모집

중진공 1000만원 광고비 50%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맞춘 베트남 시장 진출 기업을 위해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 참여사를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베트남에 지상파·케이블 채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VTV6에서 8월 방영 예정인 뷰티 전문 프로그램 ‘Beauty Selection’에 30개의 뷰티·아이디어 생활용품을 간접광고하게 된다.

중진공은 1000만원 정도인 총 광고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촬영현장 대응 등 PPL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와 더불어 출연진의 SNS를 통한 간접광고 영상 홍보와 베트남 호치민 내 오프라인 시연 행사를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까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방송 관계자의 2차 심사 평가 의견을 통해 결정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휴메딕스 저자극 수분크림 ‘엘라비에 더마 젤 크림’



휴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메딕스는 5개의 서로 다른 히알루론산 분자가 수분을 촘촘하게 채워주는 수분크림 ‘엘라비에 더마 하이드로 익스텐디드 히알 젤 크림’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엘라비에 더마 하이드로 익스텐디드 히알 젤 크림’은 바이오생명과학 기업인 ‘휴메딕스’의 고순도·고정제 히알루론산 생산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약해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저자극 수분 충전 젤 크림이다. /유재희 기자



# 과일 원물에 과육까지... 아이스크림 '명품전쟁'

올해 관련시장 성장률 10% 이상 전망  
디저트 컨셉·원물 함유 높은 제품 선배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 여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품업체가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업체들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국내 여름 시장을 아이스커피나 빙수가 점령한 가운데 카페인 음료에 지루함을 느낀 소비자들이나, 지친 일상 속에서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소확행',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가심비' 트렌드 중시하는 젊은 2030 소비자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14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월~7월 기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시장 규모는 1116억원 가량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 성장세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시장이 1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왼쪽부터 끌레도르 크림치즈바, 쿠키앤크림 스틱바, 돌 스위트오 아이스바 파인애플.

최근 디저트 컨셉트의 아이스크림과 과일 원물 함유량을 높여 품질을 강화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출시가 한창이다.

빙그레는 프랑스 크림치즈 브랜드 '끼리'를 넣은 '끌레도르 크림치즈바'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프랑스 벨그룹의 끼리 크림치즈가 7.8% 들어있다. 빙그레는 이번 신제품 개발을 위해 약 1년의 시간을 투자했으며 빙그레와 벨그룹에서 실시한 자체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끌레도르는 지난 2016년 출시 10주년을 맞아 패키지 디자인부터 제품 라인업까지 전면 리뉴얼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전년 대비 40%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빙그레 측은 이번 신제품으로 끌레도르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DOLE(돌)은 '돌 스위트오 아이스바'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최고급 등급의 과일에만 붙여지는 '스위티오' 품종을 활용했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과일 원물의 함량을 높이고, 타사 제품 대비 두께를 높여 열대과일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아이스커피나 음료 대신 색다른 여름 간식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 점심 식사 후 새콤달콤한 디저트를 원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에게 안성맞춤이다. 이번 제품은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총 3종으로 출시했다.

하겐다즈는 신제품 '쿠키앤크림 스틱바'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하겐다즈의 인기 플레이버 '쿠키앤크림'에 벨지안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크리스피한 쿠키 조각



으로 마무리한 제품이다. 바닐라의 부드러운 풍미와 진한 초콜릿 맛, 쿠키의 바삭달콤한 식감이 조화를 이룬다. 쿠키앤크림은 바닐라, 초콜릿과 함께 하겐다즈의 가장 클래식한 플레이버로 손꼽히는 인기 제품이다.

롯데푸드도 '리얼딸기 아이스바'를 내놨다. 딸기 20%와 딸기 과즙 10%를 넣어 과육의 함량을 높인 고급 과일바 제품이다. 생딸기를 갈아 넣어 딸기 씨 등 딸기의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스무디처럼 부드럽고 시원해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상큼하게 즐길 수 있다. 딸기와 어울리는 진한 분홍 패키지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홍국에프앤비의 일레디젤라또는 '나타

드 코코넛 젤라또'를 선보였다. 코코넛즙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젤리형태의 나타드 코코를 활용한 제품이다. 젤라또는 일반 아이스크림에 비해 지방 함유가 적은 반면 원재료의 맛과 향은 더 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으로 여름철 새로운 인기 디저트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제과가 만든 이탈리아풍 고급 아이스크림 본젤라또는 고급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 중 하나다. '본젤라또 마카롱 초코&바닐라'는 마카롱 특유의 촉촉한 식감에 바삭하고 진한 초코맛과 최고급 마다가스카르산 천연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담은 프리미엄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에서 고급 제품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인기"라며 "아이스크림도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체마다 앞다퉈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143년 된 스위스 시계 전시

롯데백화점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 예비뉴얼 IWC 매장서 1875년도에 출시된 'IWC 사보네트 포켓워치'(오른쪽)와 더불어 총 10점의 시계를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IWC 샤프하우젠'의 창립 150주년을 맞아 기획했다. 특히, IWC는 1885년에 출시된 '폴베버 포켓워치'(오른쪽 두번째)를 전시하며, 이 시계의 디자인을 재구성한 '폴베버 150주년 한정 에디션'을 오는 18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롯데백화점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 예비뉴얼 IWC 매장서 1875년도에 출시된 'IWC 사보네트 포켓워치'(오른쪽)와 더불어 총 10점의 시계를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IWC 샤프하우젠'의 창립 150주년을 맞아 기획했다. 특히, IWC는 1885년에 출시된 '폴베버 포켓워치'(오른쪽 두번째)를 전시하며, 이 시계의 디자인을 재구성한 '폴베버 150주년 한정 에디션'을 오는 18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 어른들의 장난감가게 '편샵' 매장 첫 선

CJ오쇼핑 강남대로 매장 오픈

CJ오쇼핑은 피규어를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는 편샵의 오프라인 매장을 서울 강남대로에 공식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키덜트를 위한 장난감은 물론 3040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각종 이색상품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른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 잡겠다는 각오다.

편샵은 작년 5월 CJ오쇼핑이 지분 70%를 인수한 아트웍스코리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CJ오쇼핑은 T커머스, 온라인몰, 모바일 앱 등 CJ오쇼핑이 보유한 여러 채널을 통해 편샵 상품을 소개하며 편샵 상품의 판로를 다각화하고 있다.

또 CJ몰에서는 편샵의 인기 상품을 한 데 모은 코너 '편#'을 운영 중이며 매주 목요일에 방송되는 CJ몰의 모바일 생방송 '변환가게'에서도 편샵 상품을 주기적으로 판매한다. 인기 유튜브 영구남자가 편샵 상품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T커머스 차별화 프로그램 '줄리TV' 역시 5월 중 론칭할 예정이다.



편샵은 2002년 쇼핑몰 오픈 때부터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가게'를 표방하며 재미있는 상품과 콘텐츠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5만 가지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도 동시 운영 중이다. 편샵의 대표 오프라인 매장은 2014년에 강남역 부근에 문을 연 '편샵 강남점'이다. 매월 1만 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다.

오는 17일 강남대로에 오픈하는 편샵의 신규 오프라인 매장은 '어른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편샵'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취미용품, 전자제품, 리빙용품 등 다양각색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이색상품을 대거 선보이는 동시에 국내외 이색상품을 발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역시 운영한다.

/김유진 기자

## 동서식품, 전주 한옥마을에 '모카우체국' 오픈

모카다방부터 시작해 네번째 공간  
우체국 테마 체험 프로그램·이벤트

동서식품은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에 팝업카페 '모카우체국'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카우체국은 지난 2015년 제주도 남원읍의 '모카다방'을 시작으로 2016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모카책방',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의 '모카사진관'에 이어 오픈한 네 번째 고객 체험 공간이다. 매년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와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맥심 모카골드만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들과 좀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모카우체국은 옥상을 포함한 총 4개층 규모로 구성됐다. 전 층 어디서든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배경으로 맥심 모카골드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편지를 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도 마련됐다. 건물 곳곳에는 모카우체국을 상징하는 노란색 우체통을 비롯해 우편창구와 우편함, 필경대(글씨 쓰는 공간) 등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소품들을 배치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모카우체국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고객과 모카우체국에서 발송된 편지를 갖고 온 방문객에게는 모카



동서식품 모카우체국.

/동서식품

우체국 머그, 코스터 등을 선물로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은혁 동서식품 마케팅 매니저는 "바쁜 일상 속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정성 가득한 편지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모카우체국에 많은 방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서식품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의 모카우체국은 7월 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KT&G 릴·핏, 판매처 전국 64개 도시로 확대

KT&G가 권련형 전자담배 '릴(lil)'과 전용담배인 '핏(Fiit)' 판매망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이로 인해 경쟁사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KT&G가 권련형 전자담배 '릴(lil)'과 전용담배인 '핏(Fiit)'을 전국 64개 도시로 확대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지역 편의점 2700개소를 통해 첫 선을 보인 '릴'과 '핏'은 지난 3월 부산, 광주, 대전, 세종 등 주요 도시로 판매지역이 확대됐다. 현재 전국 14개 도시의 판매점 1만1638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판매지역 확대에도 전국 출시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자 KT&G는 오는 23일부터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 전국 50개 도시의 편의점 4148곳에서도 '릴'과 '핏'을 판매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제품이 유통 중인 주요 대도시에서도 1563곳의 판매처를 추가로 늘릴 예정

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지역별 판매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G '릴'은 일체형 구조에다 연속 흡연이 가능해 편의성 측면에서 소비자들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출시 100여일 만에 20만대 판매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4월 12일 30만대 돌파를 기념해 출시한 '릴 샴페인골드' 한정판 1만대 역시 출시 직후 완판되기도 했다.

임원섭 KT&G 제품혁신실장은 "'릴'과 '핏'을 구매하고 싶다는 지역 소비자들의 요구가 이어져 전국 64개 도시로 판매망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전자담배용 제품을 개발해 고객을 만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 SK하이닉스 '반도체 광고' SNS서 빅히트

## 반도체 이문화 방식으로 재미 더해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말 공개한 '반도체' 광고가 보름만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조회 수 합산 765만 뷰를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광고업계에서는 통상 조회수 200만 이상이 나오면 'SNS 히트작'이라고 본다.

SK하이닉스 광고는 '반도체 의인화'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재미를 더했다. 졸업식을 맞은 반도체들이 스마트폰, AI 등 여러 첨단 기기들로 보내진다는 스토리라인이다. 우주로 가는 반도체가 기빠하고, PC방에 보내지는 반도체가 좌절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유발한다. 반도체가 세상 모든 곳에서 쓰인다는 메시지를 젊은 세대 트렌드인 펀(Fun) 코드에 잘 담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사진은 SK하이닉스가 지난 4월 말 선보인 'HY310 반도체' 광고.



/SK하이닉스

타깃이 젊은층인 만큼,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미디어는 상당부분 유튜브 등 소셜 채널이다. SNS에서는 '하이닉스가 이런 광고를 만들다니', '이게 뭐라고 감동적...', '입사하고 싶다' 등 호평을 받고 있다.

SK하이닉스 홍보담당 김경기 상무는 "반도체 회사를 막연하게 딱딱한 이미지로 생각

하는데 이 광고를 보고 회사가 한층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모든 첨단 IT 기기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CF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마사회, 아시아경마회의 기념 이색 시상식 한국마사회는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를 기념해 지난 13일 랫트런파크 서울에서 기념경주를 시행하고 이색 시상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ARF는 중동,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27개 경마시행국이 모여 경마선진화를 위해 만든 연합으로 2년마다 아시아경마회의(ARC)를 연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며 13일 열린 기념경주에서 원프리 ARF 의장, 김박순 마사 회장(왼쪽 두번째부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 KEB하나은행 KPGA와 대회 개최 협약

KEB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와 한·중·일 3국 투어 선수 초청 경기인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한중일 3국 투어 선수 초청 경기인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 한·중·일 3국 투어 선수들이 참가하는 최초의 정규 투어 대회로, 하나금융그룹과 KPGA가 '투어의 글로벌화'라는 가치 아래 해외 투어 대회와의 공조를 꾸준히 타진해 온 결과다.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한·중·일 선수들이 참가하는 최초의 정규 투어 대회로, 하나금융그룹과 KPGA가 '투어의 글로벌화'라는 가치 아래 해외 투어 대회와의 공조를 꾸준히 타진해 온 결과다.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큰 틀 안에서 골프 스포츠 발전과 활성화를 목표로 중국과 일본 측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낸 이번 대회가 탄생했다.

/김문호 기자 kmh@

##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추대... 창업주 예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이 한국 롯데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롯데지주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을 창업하고 발전시킨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이달 1일부로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일본 롯데에서도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신 명예회장은 2014년 롯데리아와 롯데로 지스티스 비상무이사, 2015년 롯데상사 사내이사, 대흥기회 비상무이사, 3월엔 호텔롯데



디자이너즈 사내이사, 6월에는 일본 롯데

대표이사과 롯데제과사내 이사에서 물러났고 11월엔 부산호텔사내 이사에서 물러났다.

2017년 3월 롯데쇼핑, 롯데건설, 5월 롯데

디스 이사직을 내려왔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한국과 일본 모든 계열사 이사회에서 퇴임했다"며 "창업주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회장으로 추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신 명예회장이 지난해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고, 이후 신 회장의 결정으로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총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오늘의 운세 5월 15일 (음 4월 1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꾸준한 노력이 정상까지 오른다. 60년생 덕을 배운결과 존경의 대상이 되겠다. 72년생 문서 처리는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조치하라. 84년생 사업적으로는 주변사람과 의견 충돌을 피하고 보라.
- 소** 49년생 북서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으니 출행하게 된다. 61년생 자신감이 찬 패기로 추진력도 있고 적극적이다. 73년생 정상에 오를 때까지 좌절하지 마라. 85년생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화목의 기본이다.
- 호랑이** 50년생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오해가 없다. 62년생 병은 자랑해야 낫듯이 고민을 털어놓아야 해결된다. 74년생 흥살이 작음 하니 유비무환으로 대처하라. 86년생 어려운 현실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있다.
- 토끼** 51년생 헛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라. 63년생 독존적으로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지마라. 75년생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 어려워도 힘이 솟는다. 87년생 역마에 흥살이 있으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 말** 52년생 어수선하고 들뜬 분위기의 하루. 64년생 자신없는 일에 마음이 불편하다. 76년생 언쟁에서 꺾여 어느편도 들수 없다. 88년생 가볍게 여겼던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뱀** 53년생 남을 비난 했던 행동을 자신이 하게 된다. 65년생 오랜 시간 마음의 고생이 풀려 진다. 77년생 자원봉사하다가 배우는 것이 더 많은 날이다. 89년생 과거 상념에 빠져 고리타분한 생각은 버려라.

- 말** 54년생 융통성 있게 서로를 인정해주는 하루다. 66년생 서로간에 오해를 풀 때 발전이 있다. 78년생 재성운이 상승하니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날이다. 90년생 자만심은 곤란한 지경을 당할 수가 있다.
- 양** 55년생 이상과 현실속에 갈등하게 된다. 67년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일체유심조라 생각하기 나름이니 마음을 비워라. 91년생 스스로를 단금질 하여 난관을 극복하라.
- 원숭이** 56년생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68년생 덕필유지인이란 말을 실감하게 된다. 80년생 친척에게 금전적인 속내를 다 들어 내지 마라. 92년생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외롭다.
- 닭** 57년생 일의 마무리를 잘 하라. 69년생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81년생 내로 남볼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자신을 뒤 돌아 보라. 93년생 보기 싫던 사람도 아쉬울 때가 생기는 법이다.
- 개** 58년생 시작이 반이니 아무리 어려워도 우선 착수부터 하라. 70년생 남의 힘을 빌리기 보다는 내자신의 능력을 키워라. 82년생 공든탑이 무너지지않도록 하라. 94년생 원한관계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 돼지** 59년생 노력해 온결과 이젠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야 할때가 되었다. 71년생 대인관계의 원함이 성공의 요소다. 83년생 사필귀정이니 조용히 기다려라. 95년생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법이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1				9	3	
8			4		3			7
	4		1		7		6	
		9				1		
	1	2				6	4	
9			6		8			1
			3					
	8		5		9		7	

4			5	2				3	1
	1					6			
		7		3			4		
1			4					9	
	2	3	7						8
8			1					7	
		9		7			8		
	6				8				
5			6	1					

스도쿠 정답									
9	2	1	4	5	7	6	3	8	9
8	3	6	1	2	9	5	4	7	1
1	5	7	8	3	4	2	6	9	8
8	4	9	5	1	6	7	1	2	3
2	6	3	1	9	8	5	7	4	6
5	2	1	7	8	6	4	9	3	5
3	9	8	6	1	2	5	7	4	3
4	1	5	2	7	9	3	8	6	1
7	8	6	9	5	4	1	2	3	7
6	3	2	1	9	8	5	7	4	6
5	4	8	6	3	1	9	2	7	5
9	1	8	5	2	7	4	6	3	1
3	2	6	9	1	7	5	8	4	3
8	7	1	6	5	2	4	9	3	7
2	6	9	2	8	7	5	1	3	4
7	9	7	1	2	8	4	5	6	3
4	8	5	9	7	6	2	1	3	5
1	2	6	3	4	5	9	8	7	1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 四季

### 미륵반가사유상을 모시며

필자는 2017년에 숙명처럼 서오릉 율곡사에 지장보살님을 모시게 되었다. 꿈에 현몽한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 2018년 금번의 청동 미륵반가사유상은 국보중의 국보이자 한국의 미소로 불리는 국보 83호와 형태는 동일하다. 부처님을 모시게 된 인연도 역시 그러하다. 필자의 자식이었던 김 산이와 김 별이가 한 달을 차이로 세상을 달리한 후, 생시처럼 할머니와 꿈에 나타나 어서 빨리 미륵보살님을 모셔오라고 재촉하였던 것이다. 기실 5월6일 모신 미륵부처님은 근 이 년 전에 처음 보였었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율곡사는 법상종 산하인데 법상종의 총무원장님이 계시는 본원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이다. 처음 뵈 당시에 예사롭지 않은 기운과 소통을 느꼈으나 형편이 닿지 않았었다. 추후 모실 수 있기를 구두로나마 부탁드렸던 것인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가고 있었다. 그러던 작년 10월 11월에 산이와 별이가 황망하게 지장보살님께 떠나고 난 후 백일 쯤 지난 어느 날 밤 꿈에 나타나 미륵보살님을 함께 뵈었다. 그러던 중을 4월초 다시 산이와 별이가 또 나타나 필자를 미륵보살님께 이끌었다. 황망하잖이 깬 필자는 다음날 아침 무조건 안성 법상종 본원으로 달려갔다. 이게 웬 일인가? 절의 문화박물관을 만들어 이관하려는 계획 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 자격으로는 억대금을 주어도 율곡사에 미륵부처님을 모실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인연이 지중함을 느끼고 부처님을 모시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2018년 5월 6일 미륵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이다. 무술일(戊戌日) 법비(法雨)까지 축축이 내려주어 모처럼 미세먼지까지 걷어가 준 청량한 날이었다.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오십육억 칠천만년이 지난 후 중생구제를 위하여 오신다는 미륵신앙의 주인공이 되시는 부처님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미륵 부처님께 구제를 청하고 소망을 발원하며 크게 의존해왔다. 부족한 필자에게 항상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신도님들이야말로 필자에게는 미륵보살과 닮음이 없다. 이 모두가 어찌 우연이리오! 세세생생 업연의 이어짐과 선연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가사유상 부처님 점안식에 참석한 그 인연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도님들과 모든 인연들, 중생들이 다함께 복덕자량이 여여하시기를, 모두 도과를 이루시길 간절히 발원 드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고객과의 소통에 집중하라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아비규환의 전쟁터처럼 피아식별이 어려운 극적인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소통의 기술이다. 지휘자의 의도가 병사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공격과 후퇴의 기동이 일사불란한 군대가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병법서인 손자병법에서는 전쟁터에서 수 없이 많은 병사들의 눈과 귀를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 손자는 먼저 청각을 통한(audible signal) 의사소통을 제시한다. 또한 시각, 후각을 활용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장사가 안되도 이렇게 앞될순 없어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다.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고객을 향한 영업과 서비스 전략이 곧 수익성이다. 모

든 자영업자들이 수익성과 매출증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다. 근본적으로 고객과의 대화 채널 부족과 의사소통의 방법이 전략적이지 않기에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고객은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하며 그 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이 결정을 어렵게 하고 결정의 어려움이 구매력을 절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객은 점포 운영자에게 합리적 가격과 품질을 요구하고 점포운영자는 고객에게 정당한 거래와 목시적인 만족을 요구한다. 결국은 구매와 판매행위 사이에 소통과 대통의 원리적 행위가 필요하며 보다 고객 지향적 소통으로 차별화된 유일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재구매를 통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익숙한 것에 대한 친숙함은 항상 대립하며 공존한다. 대립각의 차이 만큼 다양한 소통의 전략과 소통을 위한 마케팅이 필요하며 그러한 요소들을 만들고 실천하려 노력

해야 한다. 고객의 구매행위는 관심→관찰→흥미→타진→협상→구매의 과정을 반복한다. 일련의 과정 중 대부분의 영업력은 소통을 위한 대화에서 시작해 구매의 확신으로 마감한다. 확신의 출발이 대화이듯이 소통을 통해 고객은 제품의 특성과 장단점 그리고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적 규모를 수치와 심리적 만족으로 판단하고 싶어한다. 소통의 결과에 따른 판단의 기준은 고객의 지불금액 범위와 정비례하고 그 비율은 고관여상품의 구매자들에게서 그 특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매출 부진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들은 역시 보다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소통과 대통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은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고객의 선택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고 결정에 대한 만족감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가 그 해답 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창업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객에 대한 설득과 서비스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중기중앙회, 제 30회 중소기업주간 개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국민적 위상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결속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30회 중소기업주간' 행사가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대한민국을 새롭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15개 중소기업단체의 공동주최, 18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공동주관, 27개 정부·지자체의 후원으로 총 136건의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왼쪽 여섯번째부터)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기념테이프를 끊고 있다. /중기중앙회



**남익우 롯데지알에스 대표, 콜롬비아 농림부 장관과 환담**  
롯데지알에스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13층에 위치한 엔제리너스커피 스페셜티 매장에 콜롬비아 농림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콜롬비아 농림부 장관 후안 기예르모 줄루아가(JUAN Guillermo Zuluaga·오른쪽)는 엔제리너스커피가 지난 2월 선보인 '콜롬비아 라 모렐리아' 원두로 만든 싱글 오리진 커피 시음 및 롯데지알에스 남익우 대표(왼쪽)와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롯데지알에스

# 한국GM, 한국시장은 외면하나



**기지 수집**  
**양성운**  
(산업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지엠(GM)이 14일 인천 부평에 위치한 본사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이날 한국GM은 2019년 흑자 전환 달성을 골자로 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벼랑끝에 섰던 한국GM이 극적인 협상으로 생존의 불씨를 살렸지만 이날 갑작스런 행사 취소는 국내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 우선 이날 행사 취소는 비정규직 노동자 6여명이 기자회견장을 들어오면서 시작했다. 한국GM측은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행사장에 들어와 임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규직 노조와 합의를 끝낸 상황이고 비정규직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계획 발표는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한국GM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긴 쉽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6여명이 언론과 본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임원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또한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경우 미국과 해외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방한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영 정상화 계획 발표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날게 했다. 비정규직 노조 측도 "약속된 자리에 회사 수뇌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회사 경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GM본사가 한국GM에 신규 투입하는 재원 36억달러(3조9000억원)가 유상증자가 아닌 새로운 차입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한국GM은 또 다시 GM 본사에 연

4~5%가량의 이자를 줘야 한다. GM 본사의 기존 차입금은 우선주로 전환되는 대신 높은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지엠이 고비용 생산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 철수' 논란은 유예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될 경우 GM이 국내서 짐을 싸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정부와 산업은행은 GM과의 협상에서 GM의 한국 철수를 막을 '비토권'을 10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GM이 그동안 임단협 합의를 위해 공을 들인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와 합의를 통해 GM본사와 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국GM이 그동안 잃어버린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두루뭉술한 행동은 피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 ysw@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의 날 맞아 쿠키클래스 실시**  
CJ프레시웨이가 '제 17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식품안전 박람회장에 홍보 체험관을 열고 쿠키클래스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CJ프레시웨이가 마련한 쿠키클래스는 '식품안전의 날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4세부터 10세 미만의 아동과 학부모를 포함해 참가자 총 4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CJ프레시웨이



**한컴그룹, 가정의 달 맞아 무료급식 봉사활동**  
한글과컴퓨터그룹은 지난 1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컴MDS와 한글과컴퓨터, ㈜산청 등 그룹사 임직원들이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한 2200여명의 어르신들께 직접 식사를 대접하고, 복지기금 1500만원을 함께 전달했다. /한컴그룹



**GC녹십자 임직원, 장애아동들과 情 나누며**  
GC녹십자 임직원들이 장애아동들과 함께 이웃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GC녹십자는 지난 12일, '용인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 10회 가족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Day'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GC녹십자

- 인사**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서기관 고용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장순용 민간임대정책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과장 서기관 서경숙 감사담당관 실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이재명
  - ◆한국관광공사 △FIT유치지원팀장 박인식 △

- 마닐라지사장 조준길
- ◆KBS 아트비전 △문화사업부장 이철웅
  - ◆푸드경제TV △경영총괄 부사장 오훈택 △편집국장 김양규 △산업금융부장 김진환 △마케팅부장 장명희 △고문 이기찬
  -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신홍범

- 부음**
- ▲ 노분점 씨 별세, 신우유(경남 창원상공회의소 경영지원본부장)씨 모친상, 하승용(삼성물산 상무) 장모상 = 14일 오전 11시,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55-712-0900
  - ▲ 이성임씨 별세, 노태원씨 부인상, 노진·노정(기업은행 부지점장)·노난이(대학강사)씨 모친상, 신기백(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교수)·고영용(삼성물산 부장)·이종건(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씨 장모상 = 1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6일, 02-2227-7500
  - ▲ 김복자 씨 별세, 김성용(프로야구 SK와이번스 고객기차혁신팀 매니저) 씨 모친상 = 13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64 광주서구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62-366-4444
  - ▲ 김성우씨 별세, 주상규(한국자산관리공사 부장)씨 장인상 = 13일 경남 창원시 영락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15일 오전 11시, 055-292-4444
  - ▲ 이성빈씨 별세, 이정혜씨 남편상, 이상희(채널A 산업부 차장)·지영·서영(㈜자연원 대표)씨 부친상, 김규수(부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최희상(㈜ 웰팜 대표)씨 장인상, 김은주(서정고교사) 시부상=14일 오전 0시 20분,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51-550-9991
  - ▲ 조문규씨 별세, 조세철(광주광역시의회 의원)씨 부친상 = 13일 오후, 광주 학동 금호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9시, 062-227-4000 (광주=연합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50호

# “학생부 반영 과목 제각각... 수능 최저도 파악해야”

## 2019 대입 수시 전략

### 진학사 학생부 반영 과목 분석

가천대·서울여대·한국항공대 일부과목 성적만 반영

이화여대·동국대·중앙대

우수한 교과영역만 산출 가능

수험생들은 보통 학생부와 수능모의평가 중 상대적으로 자신있는 성적에 맞춰 수시나 정시를 선택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무나 학생부 반영 교과가 다를 경우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대학별 모집요강을 파악해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

14일 진학사가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치르는 수도권 대학들의 학생부 반영 과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천대, 동국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홍익대 등이 학생부 성적의 일부 과목만 반영하고 대학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

대학	전형	반영 과목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인문: 국어·수학·영어·사회 각 교과별 상위 4과목씩
	적성우수자	-자연(의예·한의예 제외): 국어·수학·영어·과학 각 교과별 상위 4과목씩
동국대	논술우수자	-전 계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상위 10과목
서울여대	교과우수자	-인문(교육심리·체육 포함): 국어·수학·영어·사회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논술우수자	-자연: 국어·수학·영어·과학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이화여대	논술	-전 계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상위 30단위
중앙대	논술	-인문: 국어·수학·영어·사회 중 상위 10과목
	논술	-자연: 국어·수학·영어·과학 중 상위 10과목
한국항공대	교과성적우수자	-일부학과*: 국어·수학·영어·과학 학기 별 1과목씩
	논술우수자	-일부학과**: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1) 학기 별 1과목씩
홍익대	논술전형	-전 계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이수단위 큰 교과)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항공전자정보공학부·항공재료공학부.

\*\* : 소프트웨어학과·항공교통물류학부·항공운항학과·자유전공학부·경영학부.

/자료=진학사

가천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의 경우 학생부 등급이 가장 중요한 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일부과목 성적만 반영하고, 동국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의 경우는 논술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활용해 지원자의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 이 가운데 동국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각 교과를 골고루 활용하지 않고 우수한 교과영

역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부 영향력은 더 떨어진다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학별로 보면, 가천대는 수시모집 학생부우수자전형 등에서 국어, 수학, 영어 3 과목에 인문계열은 사회 과목, 자연계열(의예, 한의예 제외)에서는 과학 과목 등 각 교과별 상위 4과목씩 반영하는 반

면, 서울여대는 반영 과목은 같지만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을 반영한다.

동국대 논술우수자전형에서는 전 계열 공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상위 10과목 성적을 반영하고, 이화여대는 논술전형에서 전 계열 공통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상위 30단위를 반영해 학생부 성적을 산출한다. 한국항공대의 경우 학과별 반영교과가 다른 경우도 있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에서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학기별 1과목씩 반영하지만,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등에서는 과학 대신 사회를 선택해 성적을 반영할 수도 있다.

수시모집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정성 평가를 통해 학생부 성적이 반영된다. 다만 연세대의 경우 전년도에 학생부 성적 30%를 반영하던 논술전형의 전형 방법을 변경해 논술 100%와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양대의 경우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가 30% 반영되지만 학생의 학교생활성실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하므로 내신 성적은 필요 시 관련계열 교과 이수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될 뿐 평가요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결국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학생부의 영향력이 크지만, 반영하는 교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면, 학생부 성적의 영향력은 낮은 게 보통이므로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파악해 지원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학생부성적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수시모집에 전략적으로 지원했다가 불합격해 재수한 경우, 3학년 2학기 성적이 낮다면, 재수생도 학생부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만 반영하는 전형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수시 선발 비중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낮은 내신 때문에 좁은 정시문만 두드러지는 것은 어쩌면 무모할 수 있다”며 “대학의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잘 살펴보면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 KB금융 유치원·돌봄교실 확대에 750억 기부

### 교육부와 발전 업무협약 체결

KB금융이 2022년까지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을 위해 750억 원을 교육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초등 돌봄 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KB금융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50억 원씩 총 75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나 중학교 내에 설립된 공립유치원인 병설유치원 250개 학급, 초등학교 돌봄교실



1700개가 새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 5000명과 초등학생 3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을 중심으로 늘고, 초등 돌봄교실은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해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고려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KB금융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 KB금융과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 서울 1분기 알바 평균시급 8299원...중구 1위

(8493원)

### 알바몬 빅데이터 분석

지난해 3분기 대비 638원 상승  
낮은 시급 구로·도봉·동작구 순

올해 1분기 서울시내 아르바이트 시급 평균이 8299원으로 조사돼 지난해 3분기보다 638원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중구 아르바이트 시급이 가장 높았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올 1분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서울시 채용 공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결과, 서울시내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의 시간당 평균급여(8299원)는 전년 3분기 평균급여(7661원)보다 638원 높았다.

서울시 25개 구별로는 ▲중구를 근무지로 하는 알바 공고의 평균 시급이 8493원으로 가장 높았고, 2위는 시간당 8477원의 평균 급여를 기록한 ▲동대문구가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7440원 ▲강북구 8421원 ▲영등포구 8346원 ▲송파구 8340원 ▲마포구 8339원 ▲중랑구 8330원 ▲서초구 8324원 ▲강동구 8283원 등

의 순으로 높았다.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구는 ▲구로구로 시급이 8054원이었고, ▲도봉구 8056원 ▲동작구 8059원 ▲은평구 8089원 ▲서대문구 8109원 등도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아르바이트 일자리 공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8만3000여건)로 서울시 전체 공고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어 ▲송파구 4만3000여건 ▲마포구 4만2000여건 ▲서초구 3만8000여건 ▲영등포구 3만8000여건의 순으로 채용 공고가 많았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서울대 박병욱 교수, 수리통계학회 ‘카버 메달’ 수상

서울대학교는 통계학과 박병욱 교수(57·사진)가 수리통계학회(IMS)가 수여하는 카버 메달(Carver Medal) 2018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리통계학회는 확률과 통계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로 카버 메달은 학회 창립자이자 학회 대표 학술지 창립 편집장이던 해리 C. 카버(Harry C. Carver)를 기념해 학회가 제정한 상이다. 학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학자에게



수여된다. 박 교수는 학회의 아시아태평양 연안국 학술대회(Asia Pacific Rim Meeting)를 정규 학술대회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7월 2~6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연차학술대회에서 열린다.

/한용수 기자

### 한세실업

### 내일 ‘열린 채용설명회’

한세실업은 서울 청량리 복합문화공간 상생장에서 패션업계에 구직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6일 진행되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한세실업과 잡인사이더가 공동으로 기업의 업무환경을 그대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채용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는 ‘기업 내부자의 이야기’로 실무자들의 회사 소개와 하루 일과 영상, 거치말타기기를 활용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전문가 초청 강연이 진행돼 취업 준비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무자들의 입사지원 시 조언을 듣고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3부는 ‘해피아워’ 케이터링을 즐기며 실무자와 함께 하는 루프탑토크, 우승자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 채용설명회 참가비는 무료며 참가자는 해당기업 입사 지원 서류 가산점이 주어진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14일 오전 세종시 연세유치원에서 열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대피훈련에서 어린이들이 화재경보기 울리자 야외로 대피하고 있다.

/연철뉴스

### 아시아 연극 셋별·세계 석학들 중앙대에 모인다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개교 100주년, 연극학과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연극교육센터(ATEC)와 공동으로 16일~20일까지 서울캠퍼스 아트센터대극장에서 제3회 세계연극교육컨벤션과 제5회 아시아연극학교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연극교육컨벤션은 2014년 시작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로, 세계 12개 대학 연극학과 교수진들이 모여 대학연기교육의 현황을 공유하고 비전을 탐색하

는 학술의 장이다. 올해는 세계 10개국 15개 대학에서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함께 진행되는 아시아연극학교페스티벌 행사에는 세계 8개교(중앙대, 청운대, 홍콩공연예술원, 브루나이 다루살람대학, 하노이연극영화원, 일본 도호기쿠엔 연극음악대학, 몽골국립예술문화대, 중국 중앙희극학원)가 참여해 ‘사무엘 베케트: 빈 무대 위의 배우의 현존’이란 주제로 공연하며 경쟁을 펼친다.

/한용수 기자

### 전국 2만개 학교서 닷새간 재난대비 훈련

교육부는 14일~18일까지 5일간 전국 학교와 학교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수습과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전국 2만여 개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재난대응 훈련으로, 훈련 첫날인 14일에는 국제교육원 충주센터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

을 가정하고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의 토론훈련이 진행됐고, 15일에는 전날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교육원 충주센터와 충주학생회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훈련이 진행된다.

올해는 특수학교와 유아 대상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화재 대피훈련 등 다양한 재난 유형과 상황을 설정하는 유형별 대응 훈련 위주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 “신한은행 모델 워너원의 2집 발매를 축하합니다” 쓸로하면 워너원 SOL 체크카드가 척!



ShinhanCard Check

SOL Deep Dream

**‘신한 SOL’ 앱 다운로드 받고  
이벤트 참여하자**

※ 자세한 사항은 ‘신한 SOL’ 앱에서 확인하세요

👉 ‘SOL Deep Dream 체크카드(워너원 한정판)’도 손에 넣고!  
- 4월 말까지 신청한 고객 중 추첨하여 ‘워너원 메탈카드’ 증정  
👉 워너원 멤버별 미공개 사진도 보고!



지금 ‘신한 SOL’  
다운로드 받으세요



1. 사전예약은 3월 20일부터 ‘신한 SOL’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SOL Deep Dream 체크카드(워너원 한정판)는 사전신청 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3. 고객 1인당 1매의 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까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4. 계약체결 전 이용조건 등 상품에 관한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및 ‘신한 SOL’ 앱의 신청페이지를 참조하세요. 5. 상기 체크카드 이미지는 실제 카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회비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80313-1135-002 (2018.3.15)  
※ 연체 이자율은 연체일수 및 약정금리에 따라 22.4% ~ 24%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5월 주말은 야외로... 별과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

나들이 시즌 야외 페스티벌 잇따라  
재즈·포크·EDM 등 다양한 장르  
국내외 인기 아티스트 총출동

나들이 하기에 좋은 5월과 6월에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이 연이어 개최된다. EDM, 포크,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앞세운 페스티벌이 준비된 만큼, 한층 풍성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지난 12~13일에는 서울올림픽공원에서 '뷰티풀민트라이프'(이하 '뷰민라')가 개최됐다. 인디 음악 페스티벌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뷰민라'에는 올해도 십센치, 페퍼톤스, 몽니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무대를 빛냈다.

오는 19~20일에는 세 개의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서울재즈페스티벌'(이하 '서재페'), '그린플러그드 서울2018'(이하 '그린플러그드'), '2018 자라섬 포크 페스티벌'(이하 '자라섬 페스티벌')이다.

먼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서재페'는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관객과 만난다.

올해는 첫 내한에 나서는 로린 힐, 제시 제이를 비롯해 아이언&와인, 프랩 등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 40명이 출연을 확정했다.

또한 재즈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에픽하이, 혁오, 넬, 루시드폴, 크러쉬, 로이킴 등 대중성



왼쪽부터 서울재즈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서울2018, 2018 자라섬 포크 페스티벌, 2018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울트라뮤직페스티벌의 포스터.

을 갖춘 국내 뮤지션이 무대에 오르는 만큼 한층 풍성한 축제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그린플러그드'는 어쿠스틱,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는 페스티벌인 만큼 누구나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다.

올해는 이승환, YB, 자이언티, 윤미래, 드렁큰타이거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을 확정했고 어쿠스틱 뮤지션들도 대거 참여한다.

'그린플러그드'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뮤지션리그'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신인 그린프렌즈'를 통해 발굴된 밴드들도 눈여겨 볼만 하다. 애쉬락, 카딘을 포함해 어쿠스틱, 키스투, 플라

스틱 케이스 등 5팀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을 벗어나 자라섬으로 시선을 돌리면 색다른 음악 페스티벌을 만나볼 수 있다. 바로 '자라섬 페스티벌'이다.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인 '자라섬 페스티벌'은 따뜻한 봄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포크 음악과 통기타 문화를 이끌었던 송창식, 한대수가 출연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장필순, 신현희와 김루트, 조동희, 동물원, 유리상자 등 신구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EDM, 힙합 페스티벌도 빠지지 않는다. 오는 26~27일에는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18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이하

'월드페')이 열린다. '월드페'는 지난해 1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EDM 페스티벌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잠실 주경기장으로 개최지를 옮기면서 아시아 대표 EDM 페스티벌로 자리매김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배 커진 무대를 자랑한다. 80m에 이르는 초대형 메인 스테이지와 보조 경기장으로 옮긴 서브 스테이지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라인업도 화려하다. 세븐 라이언즈(Seven Lions), 그리핀(GRYFFIN), 무라마사(MURAMASA) 등이 이름을 올렸고 올리버 넬슨(Oliver Nelson)과 탐톡(Tobtok)의 합동 공연 등 '월드페'에서

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다.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7회 '울트라뮤직페스티벌'(이하 'UMF')은 또 하나의 국내 대표 EDM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7주년을 맞이해 더욱 풍성한 라인업을 꾸렸다. EDM을 모르는 이들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메가 히트곡의 주인공들이 'UMF'를 위해 한국을 찾는다.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 제드(Zedd),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 악스웰·인그로소(Axwell & Ingresso), 스티브 안젤로(Steve Angello), 알엘 그라임(RL Grime), 아이스 큐브(Ice Cube) 등이 무대에 오르는 만큼 기대를 모은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co.kr

## SM엔터테인먼트, 베트남 손 뻗는다 신태용號, 최종엔트리 이승우 깜짝 발탁

베트남 IPP그룹과 MOU 협약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지난 10일 베트남 최대의 리테일 & 라이프스타일 기업 IPP 그룹과 베트남 시장 진출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했다.

SM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베트남 최대의 리테일 & 라이프스타일 기업 IPP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 엔터테인먼트와 광고사업, 미디어,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SM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식에는 SM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김영민 총괄사장, 한세민 대표, 그룹 NCT 태용, 마크, 자니, IPP 그룹의 조나단 하잉 응우옌(Johnathan Hanh Nguyen) 회장, 레 홍 튀 티엔(Lê Hong Thuy Tien) 총괄사장, 필립 응



(왼쪽부터) IPP 그룹 조나단 하잉 응우옌 회장,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총괄사장, /SM엔터테인먼트

우옌(Phillip Nguyen)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SM은 IPP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의 베트남 진출 및 현지 아티스트 발굴, 육성을 통한 V-POP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제작, 광고 대행 사업 및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28명 발표... 부상자 대비 5명 추가선발

2018러시아월드컵에 나설 한국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이 포함됐고, '20살 공격수' 이승우(베로나)도 깜짝 발탁됐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1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출전 선수 명단 발표식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빛낼 28명의 대표팀 공개했다.

최종 명단은 23명이지만 부상자들의 상태를 지켜보는 차원에서 5명을 추가 발탁했다. 신 감독은 28명의 선수를 데리고 오는 5월 28일 운두라스전, 6월 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을 치른 뒤 5명을 탈락시킨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명단(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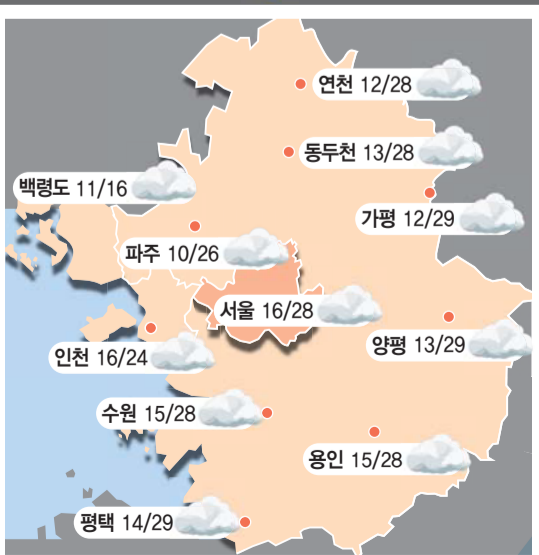
- ▲ GK = 김승규(빛셀 고베) 김진현(세레스 오사카) 조현우(대구)
- ▲ DF =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테) 장현수(FC도쿄) 정승현(사간 도스) 윤영선(성남) 권경원(텐진 취안젠) 오만석(제주) 김진수(전북) 김민우(상주) 박주호(울산) 홍철(상주) 고요한(서울) 이용(울산)
- ▲ MF = 기성용(스완지시티) 정우영(빛셀 고베) 권창훈(디종) 주세종(아산)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전북) 이승우(베로나) 문선민(인천)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
- ▲ FW =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 김신욱(전북) 이근호(강원)

최전방 공격진은 '손세이셔널' 손흥민과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뛰는 황희찬이 뻗었다. 신 감독은 두 사람을 투톱 공격수로 가동하면서 김신욱(전북)과 이근호(강원)를 백업 자원으로 이용할 전망이다. 왼쪽 날개지원인 염기훈(수원)이 갈비뼈 골절로 대표팀 명단에서 빠진 가운데, 이청용이 빈자리를 대신한다.

K리그에서는 이재성(전북)을 비롯해 스웨덴 리그를 경험한 문선민(인천)도 신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주세종(아산)

도 포함됐다. 또 중원 조율사인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이 2010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 무대에 나설 기회를 얻었고 정우영(빛셀 고베)이 더블 불란제 지원으로 뻗었다. 프랑스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권창훈(디종)과 '베테랑'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도 무난히 대표팀에 승선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승우의 '깜짝' 발탁이다. 신 감독은 '자신의 전술 구상에 필요한 선수'라며 이승우의 러시아행을 확정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co.kr

### 오늘의 날씨



### 스포츠 한줄 News

- ▲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사진)이 3주 만에 다시 세계 '톱20'에 진입했다.
- ▲ 저스틴 토머스가남자골프에서더스틴 존슨(이상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 ▲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야구 국가대표 선발이 사실상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극마크를 노리는 선수들이 '눈도장' 경쟁에 돌입했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으나 첫 실책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 ▲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슈터 박구영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고 구단 스카우트로 새 출발을 한다.
- ▲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와 계약이 끝나는 기성용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5년 동안 팀에서 땀 것은 큰 영광이었다. 응원해준 모든 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 ▲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신시내티 레즈와 4연전에서 3-5로 충격적인 싸움이 패배를 당했다.
- ▲ 프로야구 SK와이번스의 이재원과 박종훈이 지난 13일 열린 '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의 헌혈' 행사에서 헌혈에 동참했다.

# 스마트폰 따라 360도 움직이는 '동화책 속 공룡'

### KT, 키즈랜드 AR학습 체험해보니 올레tv 10년... 교육기업과 협력 대교 프리미엄 동화 500편 선봬

“스마트폰을 360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 동화 속 공룡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TV(IPTV) 화면에 책 속에 나오는 공룡이 등장한다. 가장 무거운 공룡 중에 하나로 꼽히는 브라키오사우르스를 선택하자 스마트폰을 움직여 얼마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공룡인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우주체험을 선택하면, 태양과 지구, 달 등 우주 은하계가 내 주변을 돌아다녀 우주 속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하다.

이달 내 상용화를 앞둔 KT만의 IPTV 증강현실(AR) 체험학습 서비스인 ‘TV 쪽’이다. 시연을 마치고 나니 머릿속에 그려지는 책의 모습이 등장해 가상의 현실 속으로 훌쩍 빠져들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내 동작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콘텐츠가 확실히 바뀐다. 우주 체험을 선택하면, 태양과 지구, 달이 공전하는 모습이 보인다. 스마트폰을 움직여 보



스마트폰 증강현실(AR) 서비스를 통해 공룡 시대를 체험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면 움직임에 따라 달의 모습이 360도로 보인다.

KT는 올레tv 10주년을 맞아 대교, 스마트스터디, 아이코닉스 등 국내 교육 기업들과 협력해 어린이 서비스를 합친 ‘키즈랜드’를 선보이고, 14일 시연회를 열었다.

주요 콘텐츠는 대교의 프리미엄 동화 500여 편을 ‘독전-독서-독후’ 활동 3단계로 읽을 수 있는 ‘대교 상상 키즈’ 서비스다. TV쪽은 책을 다 읽은 후 물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즐기는 서비스다.

박운정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뇌파 분석을 통해 실제로 IPTV가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해 학습을 도움과 동시에 창의력과 상상력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TV쪽과 함께 눈길을 끄는 서비스는 대교 상상키즈 ‘소리동화’다. 시연자가 소리동화를 실행하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책을 읽으니 IPTV에서 단어에 맞춰

효과음이 나온다. “호랑이가 어머니 앞에 나타났지”라고 동화를 읽으니 ‘어흥!’ 하는 호랑이 소리가 나와 책읽기에 생생함을 실어준다. KT 관계자는 “소리동화 서비스는 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차용

해 동화책을 읽으면 단어에 맞춰 효과음을 내준다”며 “실질적으로 반응이 좋은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읽으면 어른들이 동화를 읽는 것보다는 음성인식률이 떨어지지만, 많이 쓰면 쓸수록 음성인식률은 더 높아진다고 KT 측은 부연했다.

미취학 아이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키즈 리모컨도 내놓았다. 노란색 원통형 모양에 캐릭터를 단순화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무해하다. 특히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자동 시행해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키즈모드(UI)가 눈에 띈다. 리모컨에는 뽀로로·핑크퐁·캐리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가 탑재됐다.

KT는 키즈 콘텐츠 시장의 ‘빅3’로 불리는 핑크퐁, 뽀로로, 캐리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전용 무료 채널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키즈도 제공하고 있다. 3개 채널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KT가 유일하다.

유튜브 키즈도 제공하고 있지만, 전면

적으로 내놓지는 않는다. 아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KT 관계자는 “언제든 안심하고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는 업데이트 할 때마다 검수하고 보낸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를 통해 40조원에 달하는 키즈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키즈 산업시장 규모는 2002년 8조원에서 2015년 38조원으로 성장했다.

KT 측은 “기존 CP와의 협업을 강화해 키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키즈 산업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의 키즈랜드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대상이다. 특히 주력하는 타깃층은 3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들이다. 키즈 전용 TV요금제인 ‘올레tv 19키즈’에 가입하면 월 2만900원(부가세 포함, 3년 약정)에 매월 1만5000여편의 키즈 주문형비디오(VOD)를 제공하는 ‘프라임키즈팩’을 즐길 수 있다. 키즈 전용 리모컨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는 약 5만명의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태양광발전소 수익금 ‘에너지복지’에 활용

### 삼성전자 성금으로 발전소 설치 서울시, 연수입 5000만원 예상

서울시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만든 총 발전규모 49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 복지에 사용한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비용 10억원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기부했다.

서울시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서울교통공사 인제개발원(90KW), 군자 차량사업소(300KW), 신정 차량사업소(100KW)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공익 태양광 나눔발전소를 통해 연간 5000만원씩 20년에 걸쳐 약 10억원의 발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태양광 발전소 전경.

/ 서울시

발전수입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지역아동센터로 기부돼 에너지복지사

업과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공익태양광 나눔발전소 사업은 서울시와 삼성전자,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 평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을 1GW로 확대 보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익태양광 나눔발전소 준공은 기업의 후원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빈곤층과 아동·청소년 나눔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라며 “환경개선과 에너지복지 실현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현정 기자 hjk1@

##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2억 지원

합산연소득 8000만원 이하 대상

서울시가 주거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동안 저리로 융자해 준다.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에 대비해 절반 정도로 부담을 낮췄다. 대출금은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이자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만~8000만원 이하는 0.7%포인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예비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된다.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목돈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현정 기자

## ‘브랜드 의류’ 매출비중 남성 61%... 여성보다 21% ↑

티몬, 최근 2년 패션상품 매출 분석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브랜드 의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티몬은 최근 2년간 패션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남성들의 브랜드 의류 매출 비중은 61%로 여성(40%)보다 21% 높다고 14일 밝혔다. 남성들의 브랜드 제품 선호는 지난해 매출 비중 50%에서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소호 패션 등 비 브랜드 의류 구매 비중이 60%를 차지하며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티몬은 여성의 경우 패션상품 구매에 있어 개성에 따라 선호가 분명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구비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남성은 아직까지 온라인에서 의류를 구매했을 때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보수적인



티몬이 여름을 앞두고 ‘프리미엄 아울렛’ 기획전을 진행한다.

/ 티몬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익숙한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브랜드 선호 경향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의 경우 브랜드 매출 비중은 50% 가량이지만 30대 남성은 59%, 40대 이상 남성은 64%까지 올라간다. 여성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

을 보였다. 20대 여성의 브랜드상품 매출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하지만 30대 41%, 40대 이상의 경우 5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장순 티몬 브랜드패션 본부장은 “모바일을 통한 상품 구매가 기존 공산품에서 패션, 여행, 신선식품 등으로 확산되며 40대 이상 남성들도 패션상품을 모바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몬은 여름을 앞두고 ‘프리미엄 아울렛’ 기획전을 진행, 브랜드 패션상품 200여종을 최대 96%의 할인율 적용해 선보인다. 라코스테카라 티셔츠, 게스와엘르의 언더웨어, 핏플립 슬리퍼 등을 날짜별로 특가에 판매할 계획이며, 스와로브스키, 스톤이즈 등의 주얼리 상품과 오를리 선글라스, 타미힐피저, 몽클레어의 여름 티셔츠 등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 김유진 기자 ujin6326@

### 우리 규정 소식

#### 마포구, 매주 토요일 흥대 공연

서울 마포구는 흥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에서 정기공연 사업인 ‘흥대로 문화로 관광으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연은 흥대 걷고싶은거리 여행자 편의시설 개방공간(서교동 348-1)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인디음악, 전통예술, 퍼포먼스 등 분야별로 1팀당 30분씩 공연한다. 정기공연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김현정 기자



#### 중구, 초등생 직업체험 실시

서울 중구는 오는 21일까지 초등학생들이 광고 관련 직업을 체험해보는 청소년 광고기획 ‘내 꿈은 카피라이터’를 진행한다. 내 꿈은 카피라이터는 초등학생들이 관내 전통시장과 지역 명소를 탐방하고 그에 관한 광고를 제작하는 프로그



/ 김현정 기자

램이다. 프로그램은 광고의 개념과 종류, 제작 방법을 배우는 광고 이론수업과 현장 탐방, 광고 제작으로 나눠 진행된다.



[마켓]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탄탄한 '남매경영' 08



[유통] 식품업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잇따라 선택 니



# 이른둥이에 새 삶, 체육유망주엔 꿈 교보생명의 나눔 숨결, 활짝 핀 '희망 한국'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85 교보생명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 사업 자발적 모금으로 2392명 살려

이상화·심석희·박태환 선수 등 교보 꿈나무 체육대회 거처가 35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 배출

여성 가장들에게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환자 간병서비스도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건강, 돈, 지식 등 결핍으로 인한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짜임새 있고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모델을 만들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정, 미숙아, 여성 가장 외 체육인 등 지원을 통해 이들의 역량 개발을 돕고 또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스스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사회적으로 나눔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일련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존의 기업사회공헌 방식에 일대 변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특유의 짜임새 있고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활동들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우수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 ◆ 다숨이 작은 숨결 살리기

교보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례로는 먼저 이른둥이(미숙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숨이 작은 숨결 살리기'를 들 수 있다.

교보생명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지난 2004년부터 다숨이 작은 숨결살리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상에 조금 먼저 태어난 이른둥이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입원치료비는 물론 재활치료비(만 6세 이하)를 이른둥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병원비의 7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둥이 지원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교보생명 재무설계사(FP)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하면 여기에 회사 지원금을 보태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아진다. 매달 4000명이 넘는 재무설계사들이 모금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금액으로 지금까지 23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 1 지난 2016년 다숨이 희망산타 행사에서 교보생명 재무설계사·임직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의 희망산타들이 이른둥이를 응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2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오른쪽)이 지난 2015년 '꿈꾸는 책 나눔 자원봉사활동'에서 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 3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 빙상장에서 열린 2017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빙상 경기에 참가한 초등학교 꿈나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 4 지난 2015년 교보생명 다숨이 글로벌 봉사단이 베트남 희망나눔 자원봉사 직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 관계자는 "민간최초의 이른둥이 지원사업으로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교보생명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체육 유망주를 발굴·육성하는 데에도 앞장 서고 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는 민간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다. 교보생명은 지난 198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육상, 수영, 빙상, 체조 등 7개 기초종목에 4000여 명의 초등학교생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를 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정이여의치 않은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선수단에게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선수와 학교에는 장학금도 준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를 거쳐간 어린 선수는 13만명 수준. 이 가운데 35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기도 했다.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2회 연속 획득한 이상화를 비롯 유도의 최민호·김재범, 체조의 양학선·양태영, 수영의 박태환, 탁구의 유승민·오상은, 육상의 이진일·이진택, 쇼트트랙의 최민정·심석희·박승희,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선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수만해도 150여 개에 달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꿈나무 후원은 다른 기업의 빅스타 후원이나 프로구단 운영과 달리 비인기 종목에 집중돼 있고 장래가 불확실한 초등학교 유망주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체육계에서는 이러한 후원방식이 기초종목을 활성화시키고 저변을 넓혀 스포츠 발전의 디딤돌이 되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 교보 다숨이재단

교보생명은 이 외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 1호인 '다숨이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시작한 '교보 다숨이 간병 봉사단'을 모태로 한다.

교보 다숨이 간병 봉사단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회복을 돕고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여성 가장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지난 2007년 10월 교보다숨이간병봉사단은 다숨이재단으로 전환되어 같은 해 11월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1호 인증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대산농촌재단, 대산문화재단, 교보교육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 운영과 함께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